朝鮮日報
四日夕刊八面
京城府堅志洞 朝鮮日報社

社說

負擔輕減의 急務
(一) 剩餘와 그 用途如何

昨日의 東京電에 依하면 最近物價가 만히 低落하얏슴으로 政府各省의 本年豫算에서는 巨大한 旣定經費의 剩餘가 잇고 이 剩餘金의 運用方針을 決하고저 閣議를 열고 審議한다하얏스나 例의 無限한 緊縮政策에 依하야 그 歲入歲出에 큰 影響이 잇슬것은 우리의 이미 豫料하얏든바이오 또한 此를 論述한바도 잇든터이라 異常한 事實이 아니지마는 이러한 事實은 아직 아무말이 업는 朝鮮總督府의 歲計에도 반드시 잇슬바이다 物價가 오늘과 갓치 低落하얏슴에 不拘하고 그 經常歲入에는 조고만한 減縮이 업고 그 歲出만이 物價의 低落한것 만치 削減되는것이니 그 巨大한 旣定經費에서 또한 巨大한 剩餘가 生할것은 明確한 事實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總督府의 財政經濟政策의 實際問題로 民衆의 負擔輕減의 急務를 말하지 아니할수가 업는것이다

二

今日 朝鮮의 民衆負擔의 輕減은 經濟的 疲弊가 極度에 이른사람들의 切實한 要望일것이다 벌서 八九年前부터 大不況中에서 呻吟하면서 大戰中의 活況을 標準하고 膨大한 負擔을 그대로 支續해온것이 莫大한 苦痛이엇슴에다가 昨秋以來 金解禁政策의 惡影響은 極히 深刻한 程度로 侵襲한것이다 通貨가 收縮하야 金融은 梗塞하고 物價는 低落하얏스나 收入은 激減하야 購買力이 極度로 退縮하얏스나 民衆의 素朴한 生活에잇서 過大한 領分을 차지한 公課負擔이 依然함은 그들의 經濟苦를 더욱 加重하는것이 確實한것이다 特히 모든 獨占事業, 專賣業에 依한 民衆의 必須的 支出에 輕減을 許하지아니함은 一種의 無理이다 官營의 煙草價格이 그러하고 鐵道運賃이 그러하며 電氣, 瓦斯料金이 모다 그러하야 一般物價의 大規模한 低落中에서도 能히 超然한 形勢를 支續함은 그 理由가 暴利를 貪하는것 以外에는 무엇도 업슬것이다 一般物價의 下落은 모든 生産原價를 低減하는것이라 農産原料가 低落하고 賃金이 下落하야 事業費支出率이 크게 低下하고도 暴利가 업다하면 이는 經營의 無能에 基因할지니 公共의 負擔에 轉嫁할수업는바일것이다

三

旣成豫算의 剩餘는 日本과 朝鮮에 共通한 確然한 事이다 現在 日本에서는 減稅는 이미 確定方針으로 보아 그 方法을 論議하는 때이다 社會全體가 모다 그 焦眉의 急務임을 絶叫하는때이다 民家의 經濟生活狀態로 보아 그 必要性이 數倍나 더 顯한 朝鮮에서는 當局의 財政策이 果然 엇더한 方面으로 나아가는가 그 支出하는 稅金의 用途에 對하야 一言의 容喙은 비록 업다 할지라도 이를 奇貨로 삼아 民衆의 負擔이 過重함을 等閑視할수업슬바이니 當局의 財政策에는 深切한 考慮도 必要하거니와 一般公共事業의 料金에서도 負擔을 輕減하기에 時急한 用意가 必要한것이다 民衆의 經濟生活狀態가 極度로 困敗한 이때에 豫算의 剩餘로서 그리 時急지 안은 國債償還을 爲하거나 産業振興에 籍하야 偏頗한 補助 奬勵의 方面에서만 그 用途를 求한다는것은 한갓 經濟的 衰廢를 助長할 일이다 一般民衆의 負擔을 輕減하야 그로因하야 생기는 過重한 公課에 그 生活苦를 緩和하고 購買力의 增長은 生産을 助長하는 消費力의 涵養일것이니 이야말로 資本的 經濟策의 宜當히 그리하여야 할바인가 한다

反英義勇隊의 鹽倉庫襲擊成功
一萬五千隊員이 警戒線을 突破
負傷者만 百五十名

(孟買二日發) 드듸여 最後의 襲擊을 決議한 約一萬五千名의 反英義勇隊는 一日에 武裝한 警官隊의 警戒線을 突破하고 『와다라』製鹽場의 『最後襲擊』을 決行하얏다 義勇隊의 大部分은 急報를 接하고 달려온 軍隊에게 擊退되엇스나 그中 數十名은 結局 製鹽의 奪取에 成功하얏다 義勇隊의 襲擊은 午後一時 全印度國民會議派領袖의 角笛을 暗號로 集結케 되엇는바 輕傷者 百五十名 檢束者 四十名을 내이엇다 檢束者中에는 이미 逮捕된 前印度中央議會議員『에항걸, 케ㅣ, 무시』氏의 夫人을 爲始하야 十一人의 婦人도 參加하얏섯는데 婦人檢束者는 그後 釋放되엇고 目下의 形勢는 아즉 無事하다

『페』市大衝突로 印度人七名이 卽死

(『페샤월』二日發) 全印度에 넘치는 不安은 西北國境地方에까지 波及하야 一日『페샤월』에서도 警官隊와 軍隊가 激昂한 群衆과 衝突케 되는 結果 官憲側은 드듸여 發砲케 되어 群衆側은 七名의 死者와 負傷九名을 내이게 되엇다 그런데 此衝突의 原因은 一兵士가 그릇 發砲하야 婦人一名을 負傷케 하고 그 두 아들을 죽인 때문에 群衆의 激昂을 사게되여 一齊히 官憲을 襲擊케 된것이라 한다

南北兩軍의 形勢
中央軍樂觀不許
武漢의 危機도 不遠

(上海三日發) 中央軍對反蔣聯合軍은 只今 隴海津浦、平漢의 各線及湖南方面의 全線에 亘하야 衝突되여 濟南方面及長沙는 이미 危險狀態에 잇서 大勢는 中央軍에 不利하고 比較的 優勢라고 볼만한 平漢線方面에 잇서도 아즉 危機를 包含하고 잇서 그 前途는 斷然 樂觀을 許치 아니하는바 最近의 情報를 綜合하면 形勢는 左와 如하다

一、隴海線方面은 三十、三十一日兩日間의 蘭封、杞縣의 戰爭에서 中央軍은 北方聯軍에 機先을 當하야 中央軍主力은 北은 石友三, 正面은 孫楚의 引率한 山西軍, 南은 西北軍의 挾擊을 受하야 大敗하고 目下 歸德寧陵에 後退하야 陣容을 整頓中인바 一便 西北軍의 一部는 再次 南方에 轉하야 平漢線方面으로 進出한中 中央軍第六、第九、第五十二의 各師를 邀擊하고 亳州、柘城 太康方面의 孫殿英軍과 連絡하야 中央軍의 再興에 防備하고 蘭封의 線을 堅固히 하고 잇다

一、平漢線方面은 隴海線의 戰機가 漸熟하야 西北軍의 大部分이 同方面에 移動한데 乘하야 何成濬氏는 中央右翼部隊인 第九軍(王金鈺)第十軍(徐源泉)에 對하야 屢屢 攻擊을 命하얏스나 兩軍은 僅僅 臨潁을 占領하얏슬뿐으로 積極的 攻擊에 轉한 態度는 자못 曖昧하다 또 右翼의 中央直系 第九、第六의 兩師는 周家口에서 太康、西華에 進出하야 蘭封攻擊의 中央軍을 應援하는바 同時에 許昌을 攻擊하고 잇는바 西北軍이 頑强히 對抗하야 아즉 許昌을 占領치 못하고 잇다

一、津浦線方面은 李生達及獨立二個旅이 隴海線의 戰況이 有利함에 乘하야 石家莊에 잇든 豫備隊인 王靖國의 五千軍과 馮鵬翥의 五千軍이 天津經由로 續續南下中인바 韓復榘는 黃河鐵橋를 破壞하고 防戰을 圖謀하엿스나 韓軍兵力은 約一萬五千이고 또 新兵이 多數로 士氣가 不振함으로 韓軍應援의 馬鴻逵는 形勢不利함을 보아 兗州에서 徐州에 後退하고 又 西部山東의 陳調元氏는 石友三軍과 芝罘의 劉珍年氏는 山西의 傅作儀軍과 各各 某種의 諒解를 遂行함과 如한바 態度는 消極的으로 濟南陷落도 다만 時日의 問題이라고 보게 되얏다

一、湖南方面은 湖南軍이 張發奎及廣西軍과 長沙에서 對峙中으로 湖南軍은 夏斗寅、錢大鈞의

湖南軍四個團
中央에 謀叛
張發奎軍에 編入되여

(上海三日發) 漢口로부터 온 報道에 依하면 湖南軍의 獨立第五旅의 一團及十六師의 三個團計四個團은 張發奎軍에 加擔하야 同軍에 編入되엇다 이때문으로 湖南의 情勢急轉되어 中央軍은 何鍵氏를 鞭撻하는 一方 一個師를 援軍으로 長沙附近에 淪落한바 何鍵氏의 態度는 依然 曖昧하야 아조 戰意를 缺하고 張發奎氏의 密使와 會見한後 妥協條件을 議論中이라고 傳하야 廣東軍은 不遠間 그다지 戰火도 交치안코 長沙에 入城할것이 確實하다고 본다

蔣氏의 出兵懇請을
張學良氏婉曲拒絶
結局大勢順應態度

(奉天三日發) 反蔣軍의 追擊이 急據하야 山東의 危機切迫함으로 蔣介石氏로부터 張學良氏에 對하야 山海關의 奉天軍을 平津地方에 出動케 하야 反蔣軍의 後方을 牽制하야 달나고 懇請하야 왓슴으로 學良氏는 本日 誕生祝賀로 來奉한 張作相氏와 商議한바 잇섯스나 兩巨頭의 意見은

一、東北四省은 昨年의 對露戰爭으로 兵力軍資가 非常히 消耗되엇슴으로 婉曲히 此를 拒絶하고

二、山東의 陳調元、韓復榘等의 獨立宣言을 設하야 中央으로부터 離反할날을 기달려 東北四省도 漸次中央에서 北方으로 重點을 移動

三、北方政府로부터 加入의 勸告가 잇슬時는 孫傳芳은 軍政部長에 入하고 形勢에 依하야 提携하야 가게할 方針으로 今日中에 來奉하는 萬福麟、湯玉麟等과도 商議한後 態度를 決定할터이라 한다

(北平三日發) 蔣介石氏는 隴海線攻擊失敗와 山東의 形勢가 險惡한 때문에 張學良氏에 對하야 速히 平津地方에 出兵하는 同時 太沽를 封鎖하야 時局을 救濟하야 달라고 打電하얏스나 學良氏는 婉曲히 此를 拒絶하얏다 學良氏는 形勢觀望으로부터 大勢順應에 기울게 되얏다

南北의 勝敗는 津浦線서 決定乎
蔣氏의 總司令部는 依然歸德에
隴海線兩軍雙方疲勞

(南京二日發) 三十日朝부터 進行된 隴海線野鷄岡의 北軍陣地에 對한 中央軍第二回總攻擊은 激戰二晝夜에 亘하얏스나 北軍의 頑强한 抵抗으로 雙方에 多大한 犧牲을 내엇슬뿐이오 何等 進展을 보지못한後 失敗에 歸하얏스나 南北兩軍은 모다 非常한 損害를 밧든우에 疲勞의 極에 達하야 昨日以來 雙方이 모다 攻擊을 中止하고 各各 陣地를 堅固히 하야 오로지 守勢를 取하고 잇다 따라서 同方面의 戰線은 또 勝敗를 期待할수업고 南北兩軍의 勝敗는 全혀 津浦線一帶의 戰鬪에 달다고 보인다 그런데 蔣介石氏의 司令部는 依然 歸德에 잇다

[illegible] 攻擊을 開始하리라고 報하고 잇는바 湖南軍의 主力과 連絡하고 또 援軍의 實上 張軍에 [illegible] 의 異名잇는 張軍에 對하야 勝算이 有하다 [illegible] 長沙의 [illegible] 數日中이라고 볼수잇다 長沙가 [illegible] 는 徐徐히 切迫하리라고 한다

勞農政府의 人民委員移動

(莫斯科二日發) 勞農政府는 本日付로 左와 如히 人民委員代理의 任免을 發表하얏다 『조세푸·운슈리히트』 免陸海軍人民委員代理任最高經濟會議議長代理革命軍事會議議員 『리-로어-무·우에로부』 이르치잔·갈마니 任陸海軍人民委員代理

南京側元老派가
陣容更新을 劃策
國民會議召集을 表面看板으로
元老政治를 施行

(北平三日發) 南京政府元老派는 全般的 形勢가 南京側의 不利에 陷한 때문으로 政府의 根本的 消滅을 보기前에 陣容의 更新을 企圖하야 第一로 蔣介石氏를 下野시키고 張靜江氏를 代理首席에 推薦한後 譚延闓、胡漢民、李石曾、孫科等의 元老政治를 施行하야 多少北方側의 主張도 容認하야 國民會議召集을 看板으로 時局을 收拾하야 적어도 浙江、江蘇、福建、安徽、江西의 五省을 配下에 모흐려고 劃策中인바 右에 對하야 北方側은 一時 그 形態를 中止한다 하드래도 南京政府의 勢力은 結局 浙江、江蘇의 一部에 不過하리라고 하야 問題해 하지안허 鼻息이 俄然 거칠게 되엇다

蔣介石氏 極度로 疲勞
不遠間靜養

(南京三日發) 二日前線에서 歸來한 某士官은 左와 如히 말한다 隴海線上의 南北兩軍은 모다 疲勞困憊의 極에 達하얏다 蔣介石氏는 歸德에 總司令部를 設置하고 晝夜不眠不休로 째骨高出하게 되어 非常히 疲勞한 氣色을 보이는바 近日中 靜養하기 爲하야 歸京할는지 알수업다

外國軍艦에 退去를 要求
湖南省當局이

(上海三日發) 長沙來電에 依하면 湖南省政府는 在長沙外國軍艦에 對하야 長沙에 砲彈이 落下할는지 未知이라고 하야 退却을 要求하얏다

中央軍形勢不利
濟南抛棄를 難免
許昌方面總退却開始

(北平三日發) 三十日부터 開始된 第二次攻擊의 結果 杞溝太康方面의 西北軍主力은 亳州鹿邑指揮下의 中央軍을 擊破하고 蘭封의 西北軍도 許昌東部地點에서 中央軍을 擊破하고 臨潁의 反蔣軍은 目下激戰中에 잇다 隴海線의 中央軍은 歸德에서 孫良誠軍에게 敗北되고 主力部隊와 連絡이 斷絶되야 隴海線正面의 中央軍은 濟南放棄와 同時에 徐州의 第一防禦線에 退却할수 밧게 업게 되얏다

(北平三日發) 平漢線許昌의 武漢軍은 總退却을 開始하야 周家口와 北方의 秋溝、太康은 西北軍에게 占領되엇다 隴海線亳州方面의 馮軍騎兵隊는 碭山에 進擊을 開始하얏다 結局南京軍은 濟南放棄로 徐州의 第一防禦線도 保持키 어려워 中國古來의 要地인 蚌埠의 線에 退却하야 「淮를 讓守하는者는 江南을 防守할수잇다」는 古事에 依하야 全戰線의 大縮少를 하리라고 보게 되얏다

南京側에서 毒瓦斯를 使用
國際協定에 違反이라고
閻氏가 外交團注意喚起

(北平二日發) 閻錫山氏는 南京國民政府가 獨逸人顧問을 傭聘하야 作戰의 衝에 當케하고 毒瓦斯其他의 國際協定에 依하야 禁止되어잇는 軍器戰法을 使用하는것은 「벨사이유」條約에 違反한다는 旨下에 北平外交團을 通하야 各國政府의 注意를 喚起하는 同時에 國際聯盟에 對하야 此의 阻止方法을 申請하라고 在北平外交處長朱鶴翔에 對하야 右處置를 電命하얏다

北方軍徐州攻略을 計劃

(北平三日發) 北方軍은 乘勝의 勢로 隴海線에 主力을 集中하야 一擧徐州를 攻略하라고 馮玉祥氏는 再昨日 鄭州에서 前線에 出動하얏는데 第一線으로부터 各戰線의 兵力은 西北山西兩軍을 合하야 이미 八個師에 達한다

中國內政엔 不干涉態度
政府의 方針決定

(東京電) 政府는 三日의 閣議에서 幣原外相의 報告에 基하야 中國戰局에 對한 日本政府의 態度對策에 對하야 愼重協議한 結果 大體로 左와 如히 決定하고 臨機의 處置는 外相에게 一任하기로 하엿다

日本政府는 危險區域인 濟南方面에서 日本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의 擁護를 爲하야 이미 南北兩軍의 首腦部間에 絶對保障의 諒解가 잇슴은 아니라 萬一의 境遇에 臨하야 對策도 急先官憲에게 嚴命하얏슴으로 政府로서는 中國의 內政에 干涉하는것 等行動을 一避하는것이 至當하다는 意見에 一致하엿다

韓復渠氏 謀叛은 事實
山西派와 諒解成立

(濟南三日發) 韓復渠氏는 二日各領事를 招待하고 茶會를 開하고 在濟南在留外人保護問題에 對하야 萬一山西軍이 黃河南岸에 侵入하는 時는 防禦하드라도 徒勞無辜한 市民을 傷하게 함에 不過하고 때라 戰鬪치 아니하기로 決心하얏다 또 傅作儀와는 年來의 友交가 잇슴으로 平和裡에 交涉할 方法도 잇다고 말하얏다 또 別報에 依하면 山西軍은 이미 齊河東河方面을 渡河한 今日 韓復渠氏의 謀叛은 頗히 明白하야 濟南援受方法이 兩者間에 議論되어 잇스리라고 보인다

上海郊外서 砲彈爆發
職工五名卽死

(上海三日發) 三日午前八時 上海南郊外高昌廟砲兵工廠에서 砲彈이 爆發되야 附近住民은 北軍便衣隊의 襲擊이라하야 一時騷動

山東軍總退却
濟南危機切迫

(北平三日發) 津浦線의 山東軍은 黃河鐵橋를 破壞하고 黃河以南으로 總退却하야 濟南의 危機는 目睫間에 切迫하얏다 따라서 山西軍의 濟南入城은 三、四日中이라고 觀測된다

選擧違反統計
司法省發表

(東京電) 司法省에서는 二日 總選擧時의 選擧違反事件의 統計를 左와 如히 發表하얏다

受理總員	二〇、七七四名
起訴	一七、三三一名
不起訴	三、四四三名
禁錮	二二一名
罰金	一二、六九〇名

또 政派別로 보면

政友	一一、三四〇名
民政	四、五一二名
其他	一、四七九名

또 立候補者의 起訴된 者 一九名 中 落選十名 當選九名

反對를 無視한 決定은 不當
洋洋會決議

(東京電) 倫敦條約에 關하야 惹起된 統帥權問題에 對하야 海軍의 豫後備將官들에 依하야 組織된 洋洋會에서는 二日午後六時부터 水交社에서 總會를 開하고 有馬大將柄內大將을 비롯하야 各會員出席後 協議한 結果 左와 如히 決定하엿는데 該決議案은 海軍豫後備將官全體의 意思임으로 各方面에서 相當히 注目하는 바이다

一、國防上所要의 海軍兵力量의 作案은 軍令部長의 責任임에 鑑하야 또 從來의 實際에 對照하야 今回의 軍令部長의 重大한 反對를 無視하고 回訓案中의 兵力量에 關한 事項을 決定한것은 不當하다고 確信함

二、倫敦條約의 兵力量에 關하야는 國防의 將來를 危殆케 하는 虞가 잇다는 軍令部長의 所信과 全然同感으로 深憂不堪이라고 하엿다

人事消息

▲齋藤總督 四日間의 豫定으로 黃海道를 巡視코저 四日午前九時五分發列車로 近藤秘書官을 同伴하고 京城驛出發

八面鋒

○中國時局이 擾亂하야 濟南日本居留民은 또다시 出兵을 請願

○그러나 濱口內閣은 中國內政에 不干涉主義를 取할터이라니

○한참 當年의 田中大將이 업서진 것만은 大遺憾일 듯

○中央軍側에서 毒瓦斯를 使用함은 國際協約에 違反이라고 閻氏가 外交團의 注意를 喚起

○이편은 업서 못쓰니까 배가 압흐다는 수작이나 아닐지

六百餘名勞働者가 電氣局에 殺到
中途警官隊에게 解散
東京市電爭議餘波

(東京電) 東京市電氣局에 殺到하라고 三日午後一時頃에 數寄屋橋附近에 雲集한 東京交通勞働組合員 六百餘名은 警官隊에게 解散되엇는바 그中 二十三名은 警戒線을 突破할다가 檢束되얏다 또 急進派 二百五十餘名은 內幸町本部에서 抗爭擴激演說會를 開하랴고 한바 無屆出集會라하야 日比谷署에서 解散을 命하얏다

[illegible] 한것인데 作業中 엿職工 死名은 卽死하고 十二名은 瀕死의 重傷을 負하얏다

鐘紡爭議解決
會社側도 讓步

(大阪電) 鐘紡兵庫工場爭議는 二日 左의 條件으로 解決되엇다

一、爭議費用으로서 會社는 一人當男工十二圓、女工十一圓을 食費로서 支給함

[illegible] 協定한

三、三個年手當의 本給編入은 下半期에서 此를 實行함

四、解雇者의 復職은 會社側의 裁量에 一任함

五、會社에 對하야는 組合도 解雇者도 反抗 또는 策動치 아니할 것

六、會社從業員에 對하야 勞働組合加入을 勸誘치 아니할 것

其他

右協定은 밧고 것게 成立하얏다

長沙를 占領乎
戰火도 交치안코
政治的으로 解決될터

(漢口三日發) 其後의 長沙情況은 兩軍이 河水를 사이고 對峙中인바 아즉도 砲火를 交하게는 안되엇다 그러하야 當局은 砲火를 開하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領事團에 通告해 왓스나 一般的으로는 長沙는 戰火를 交치안코 政治的 解決을 告하리라고 觀測한다

政務官會議에 中國戰況報告
永井次官이

(東京電) 定例政務官會議는 二日午後一時부터 三時까지 首相官邸에 開催되얏는바 席上 永井外務次官은 中國時局에 關하야 左와 如히 報告하얏다

中國은 中央軍隊反蔣軍의 戰況은 最近에 隴海河附近에 잇서서는 反蔣軍이 顯著히 進出하고 南方面 廣西軍及張發奎의 聯合軍도 武漢을 目標로 湖南에 北進하야 形勢는 中央政府에 不利한 模樣이다 日本政府는 山東附近의 局의 推移에 對하야는 特히 注意하야 在留日本人의 生命財産保護에 遺憾이 업기를 期하고 잇다

政府側의 物品購入局案
急速實現은 困難

(東京電) 井上藏相은 行政의 經濟化에 關聯하야 物件費節約을 圖謀하기 爲하야 英米의 例에 模倣하야 物品購入의 一局을 設置하고 政府의 物品購入을 統轄하라는 意嚮을 가지고 잇는바 그 實現에는 議會의 協贊을 要하고 許多의 複雜한 問題가 잇서 分職相도 急速히 實現할 熟意는 업는 模樣이나 萬一 此를 實施하게되면 官廳使用品의 規格統一의 國産愛用 經費의 節約은 顯著히 容易하게 되어 豫算分捕의 惡弊도 相當히 緩和되리라고 한다

注意하시요 僞造藥을
美極上上品!!

萬病藥水
만 병 약 수
壹甁 定價金壹圓九拾錢也

▲만병약수라하오면, 우리조선에서, 단, 이약하나뿐이올시다, 이밧게 또잇다하면, 그는위조픔이올시다 이약은각국전문가들이 藥效顯著하다고 칭하는 高貴藥으로서, 배제한, 령약이올시다
▲만병약수효험은 온세상사람들이, 이미, 아시는바이온고로,『틀님업시효험잇다』『고다시로할바업습니다』이약먹고 병나은사람과, 거의죽게되엇다가, 다시산사람과, 약한몸이건강케된사람과, 건강된몸이 더욱건강케된사람에게서, 본원으로『고맙다』는, 감사장이 만히 도착합니다。약효가 확실함은, 본원에서보증하오니, 병잇는, 여러분이여, 하로라도, 속히이약을먹고전처하십시요
에비수製造美極特上品

EBISU
金鷄蠟
금 계 랍
三十그랍入 金貳圓
十四그랍入 金壹圓
六그랍入 金五拾錢
二그랍入 金貳拾錢

EBISU
005008
萬病散
만 병 산
에비수製造極上上品
十三包入 定價金壹圓
二十八包入 定價金貳圓
七十五包入 定價金五圓
百七十包入 定價金拾圓
효험확실한 미극상품 만병산
●폐병으로、늘기침이나서 힘엽는사람、감긔로기침이나서밤잠못자는사람◉목쉬고기침나는사람、 담으로 늘골골하는사람오랫동안기침으로 고통한사람、 기침이나서가슴압흐고、또복통한사람、 배압흔사람、위통、자궁병、 소하불량으로 복통기침이나서밤잠못자는사람은 이약한봉을자시고、 고통한것도낫고 평안하게 줌으실것이요(廣告冊無代進呈)(代金引換迅速酬應)先金으로請求하시라면약갑과 小包料를合하야 振替口座釜山二、二二四番으로보내주십시요

製藥所
愛斐壽藥院
에 비 수 약 원
SAIKICHI EBISU
釜山長手通思案橋電車停留所前

運轉手養成 運轉手紹介
中央自動車研究所
免許엇기까지責任敎授各道指定試驗車其他各種車完備入學隨意學費低廉
三個月間卒業까지全學費六十五圓兼習申込學則無代送呈
自動車運轉手에有意하신분은本所의理想的敎授와廣大한實習場에서學生練習함을보시요 (京城桂洞一五一番地)

共産黨鐵血團合勢 第三次襲擊計劃

國境一帶軍隊增派

本社特派員 朴尹錫 金起林 發電

재작일에 또다시 무장공산당의 재습격이 잇서 그들의 거침업는 직접행동이 혹시나 조선국경에까지 침범되지 안흘가하야 경찰당국에서는 비상경비선을 더욱엄중히하는한편 현재의경비력으로서는 간도대안의 국경연안을방비키 불가능하다 고하야 라남(羅南)의십구사단(十九師團)에응원을 청하얏슴으로 사단사령부에서는 국경수비대를 두만강(豆滿江) 연안일대에 증원배치하얏다는데 일방공산군들은유명한 철혈단(鐵血團)과 로서아(露西亞) 국내에잇는 조선인각단체와 련락을취하야 대규모로 제삼차습격준비를하고 잇다는말이잇서 민심은또한층 소연하고 경계는무서워 간다고한다

이두단체가 금번사변을폭발하든 전일즉오월삼십일은중국인의오주년(五卅節) 즉국치긔념일(國恥紀念日)임으로 이날을위하야 룡정시내중국인학교는물론이오 조선인학교의 남녀생도 참가하야시위 행렬을하는 동시에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재건설준비부(再建設籌備部)라는 등은선전 삐라를 각처에뿌린것을 단서로하야 학생의 검거범위도 매우 확대되는모양인바 이와가튼여러가지 중대사건이 잇는뒤 간도부근에는 류언비어가 성행되어 밤에는일체털시하고 사람의그림자를볼수업다 한다

北頭道溝再襲時 朝鮮人民會全燒

밤을새어서경계하는시가지 檢擧被疑는地下室收容

소란중에잇는 간도(間島)에는 이일밤 북두도구부근(北頭道溝附近)의 최동가는경계선을돌파(突破)하고 오륙십명을넘는 공산당원이또다시습래(再襲來)하야조선인민회회관(朝鮮人民會館)에불을질러서재를만들고 부근일대에 공산주의에관한격문(檄文)과협박문(脅迫文)을산포하는동시에권총을발사하는등 수라장으로 화하게한바 경계중이든국경경비대의발포로 전긔습격군은교묘히행방을감추엇는데 오륙십명공산군중에는조선인이외에일본청년(日本靑年)과중국청년(中國靑年)까지석겨잇서관헌측에서는이들배후에일본과중국의공산당까지도련락이잇스리라고보아일중대시하며 중국관헌당국에 응원을급청하는한편일의조선국경수비대의일부도속속도착하야 경비를더욱든든히하며철야경계(徹夜警戒)하는 동시조곰이라도거동이수상한청년혹은 평소주의인물은 모조리검거하야 엄중한취조를한다는데 취조중에무슨단서나어덧는지일일은 새벽부터각방면에 대활동을개시하야 다수협의자를체포하여다가 령사관경찰서 지하실(地下室)에수용하엿다한다

上三峯鐵橋破壞說로 軍警을配置하야警戒

간도사변이 돌발한이래 사오일을 경과하엿건만 그뒤의여러가지정보에의하면 언제다시 무슨사변이 이러날는지몰으나하야 군대측과 경찰측에서는 크게경계하고잇다하는데 별항보도한바 다시 미들만한모처에 도달된정보에의하면 군사상또는 무역상중대한 관계가잇는 상삼봉지방정거장간(上三峯洲坊停車場間)의 유명한국제철교(國際鐵橋)를 파괴코저 준비중이든듯하다하야 종성수비대(鍾城守備隊)의 군대다수는철교부근에급행하야 목하엄중경계중이라한다

大正八年以來로 初有의重大事變

昨年以來警官被殺十餘名 被疑者六十名檢擧

【領事警察署員의福井氏談】

불안과공포(不安恐怖)중에싸힌 간도(間島)지방은 무장경관의활동이 더욱맹렬하야룡정촌(龍井村)을 중심으로하고또조선함북 연안각지에도수배하야 사건의피의자를속속검거하야 사일아츰까지에 검거자가오륙십명에 달하얏다 이에대하야간도일본 총령사관의복정(福井)씨의말에의하면

『이와가튼 공산주의자의직접행동은 대정팔년이후 처음으로각지에서 일시에그리고일제히 련락을취하야 건물에폭탄을던지고전선을 끈코철도를파괴하는 실로놀랄만한 주밀한계획으로마츰내전간도일대를 그와가티소란케한것이다 아즉단서는잡지못하엿스나 피의자가만히검거되엿슴으로 불원중에사건의 정체가판명될줄안다 그런데이번사건은지난십월일일○○운동○○긔념일에 경계가비상히엄중하엿슴으로 그때거사하려든것을 못하엿다가지금에니르러서한것도갓고 이현종류의일이 이후각금잇스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사건으로 일본경관이피살되기는 작년이래십여명에달함으로간도는실로위험지대라할것이다 그리고통신 전선을끈는행동을함은 더욱두려워할런락을취할수가업다 그리하야령사관에서는 고심연구한결과 조선국경에잇는 각수비대의 전서구(傳書鳩)를빌리기로되여 이를최근에시험한결과 간도라남(間島羅南)간의원거리를 겨우한시간으로왕복통신하여성공하엿슴으로이후는 엇더한위험이잇든지 이로통신하고저한다』

百餘名豫備檢束 各地避亂民續來

중국국치일에조선인이피란 夜間은撤市、出入嚴禁

간도부근일대를 습격한공산당원은 다시두도구(頭道溝)부근에 그근거를두고 그지방과밧이도구(二道溝)부근에잇는 조선민회(朝鮮民會)와 구산학교(邱山學校)와 보통학교등도처에불을질너 대확버리고 오십여개소에 폭탄을던지어대파괴를 하얏다 그러하야 북만주(北滿洲)에 통하는 철교등은 파괴되고인민은 속속피란하여 [illegible] 모여든피란민

은 극도로혼란되야 인심은흉흉한바 룡정촌부근은 계엄상태로 중에 싸혀잇는데 간도지방은 물론 연길현(延吉縣) 전체가 밤이 되면 일제히 출입을 금지하고 거동불온한사람은 속속검거하야 그용의자로서 십명을체포하얏다하나 정확한수자는 아니오 다못령사경찰은 만일을우려하야 예비검속으로써 백여명을 검거하얏스며 조선에통하는 철도는 복구되엇스나 북만주로 통하는 각철도는아직도 복구될 가망이 보이지안는다 이로인하야 여관헌측의 추적과수색은 곤난한 상태에 빠지어자금은 단지재삼 [illegible] 道溝)상도구(三道溝)로도구(老頭溝)의 각자는 혼란상태에잇는바교통두산

全燒된教育機關

금번 공산당사변으로 전소혹은 반소당한 령사관계의 보통학교는일개소의 서당(書堂)이 사개소로 그곳에통학하고잇는 학생수가 모다 [illegible]의 다수에 달하얏다는데 대개는학교집을 전소당하얏거나 그러치안흐면 이십이 수선하야사아직 수업을 개시하지못하고 잇는모양이라는데 이에관하야 총독부학무당국의 발표에의하면 학교측피해는 아래와갓다고 한다

一、二道溝書堂(學童數一九一) 湖川書堂(學童數六十四)은 三十日夜一時부터二時까지全燒

二、南陽坪書堂(學童數一一七)

三、四道溝普通學校(學童數四六)一部燒失 明道溝普通學校(四五六)은放火未遂

小學校長官舍에投石

불노앗다진화

며옥사변당시에 룡정촌에서는 일본인소학교장관사에도 돌을던지엇다하며 두도구의 모교사집에방화하엿섯스나진화하엿다고한다

中國馬賊團이橫行

며칠전에도습격하야와서 同胞三人을또慘殺

이번간도사건의 발발된이래 북만주(北滿洲)의왕청현(汪淸縣) 오지(奧地)에강력의 마적단(馬賊團)이발호(跋扈) 하야 조선○○단(朝鮮○○團)이라고하여서 각지조선인부락을 습격하고 약탈(掠奪)과 살육(殺戮)을하는데 수일전에도 모처에서조선인 세사람이 전긔마적단에게 총살되엇다한다(간도특뎐)

中國國恥紀念에 朝鮮靑年被捉

사십여청년이시위중 旗手崔虎龍이領警에

지난삼십일은오삼십참안오주년긔렴일(五卅慘案五週年紀念日)임으로 이십구일밤에 간도룡정(龍井)시내각처에 격렬한 선전문이 다수산포되어 일중경관대(日中警官隊)는 철웅성가티 경계선을 느리어노핫든중 지난삼십일오후륙시경에 남녀청년(男女靑年)사십여명이 타도××주의(打倒××主義)란 깃발을 들고만세를 고창하며 선전문을뿌리면서 전시가지를 일순한뒤 정거장통에서 시작하야 나갈때에경관에게 해산을당하고 긔수최호룡(旗手崔虎龍)은 일본경관에게 체포되얏다 한다(간도)

天圖線罷業說로 警戒益嚴重

동맹파업을특별경계 龍西北武裝團屯聚

별항보도와가티 일일아츰 으로부터 일본경찰은 물론이오중국군대와 순경등도 특별경계를하고잇는바 룡정시에는 하오여덜시부터 외출을 금지하고무득이 한사정에한하야 반드시등불을 휴대케한다 일일석각에는 두명의 용의자를잡엇다는바 이번방화에는 석유와 류황을사용한것이판명되엇다하며 천도철도(天圖鐵道)의 피해는약이삼천원에 불과하나 후는그종업원의 총파업(總罷業)이일어나단말이잇슴으로 특별경계중이라하며 아즉도 룡정서북오리(五里)되는 디점에는 오륙십인의 무장단일대가잇다한다

馬鞍山附近에 百餘共黨員出現

룡정에서칠십리되는곳에

룡정리(龍井村)로부터 칠십리되는곳에잇는 마안산(馬鞍山)부근에 백여명의공산당원이 작야십일시경에 나타낫다고 한다

權支京支會 部署新選定

근우회경성지회(槿友京城支會)에서는 이일오후 다섯시에그회관안에서 리경희(李瓊姬)씨사회로집행 위원회를열고 다음과 가튼사항을결의하엿다한다

一、臨時大會의件 지난五月十五日에開催한臨時大會는本部에서會員이法定人數에達치못하얏다는理由로不法大會라는指令을認定하기로하다 따라서臨時大會에는選擧한委員은無効로되엿슴으로定期大會에서選擧된候補 洪恩希 李景子 兩氏를補選하다

一、部署配定

가、庶務部 李瓊姬 朴福會

나、財政部 申貞均 鄭貞玉

다、宣傳部 鄭純姬 金淑

라、調査部 鄭貞玉 洪恩希

마、政文部 金光浩 李景子

一、其他事項 職業紹介所에關한件 職業紹介所를擴大하기爲하야 常務二人을選擧하니 李瓊姬 鄭純姬더라

寄附를稱託 近二萬圓詐取

飛行學校에寄附한다 富豪土地를銀行에抵當하고

경상남도진주군 진주면 중안동(慶尙南道晋州郡晋州面中安洞)에거주하는권수희(權洙熙)(三五)와 동군 산청군생초면신개리(山淸郡生草面新開里)조천덕(趙天德)(三)량인은 공모한후시내무교정(武橋町) 오헌지 산양자동차부(山陽自動車部)와 여의도(汝矣島)비행학교(飛行學校)를경영하는 신용인(愼鏞寅)씨가 자긔사업상관계로 긔부금(寄附金)을 모집하는중에잇슴은아니라남대문통(南大門通)에잇는 모 은행과 상신용이 잇슴을탐지하고 이를리용하야사긔를 감행할 계획을 품은후 삼월조순경에권 조천덕은신씨에게 말하기를 자긔는 비행학교에 입학하랴는데 오천원을 긔부할터이니 자긔소유 재산은 업스나 모(母)와 조부(祖父)명의로는 상당한재산이 잇슴으로 그토지를 담보하야 사업을위하야 돈을 차입할터이니 소개하야달나 한후 고의리한후 고성군 영오면 (固城郡永吾面)에잇는 토지진주군 금산면 동사리(晋州郡琴山面東沙里)부호정련석(鄭璉錫)의소유구십칠필은 자긔어머니가 정씨에게 신탁하야 둔것이라고교묘한 말도사칭한후중개인(仲介人) 도다섯사람이나 나서서 정씨에게면회가게되어서시내다옥정(茶屋町)다옥려관(茶屋旅館)에는권수희가정씨로가장한후신씨와대면하야 조천덕 모에게서토지의신탁을 바닷다고 속히다음에정씨의인감증명(印鑑證明)과 호적등본(戶籍謄本)등을 금산면사무소로부터 수취하야토지권리증서(土地權利證書)와기타일체문서를 위조하야 신씨를 신용케한후 은행에동행하야 그서류를 뵈인결과 은행에서도 사실노인정하고 오월초순의 은행원과가티 나려가서 토지를감정한다음에정(실상은권수희)씨가

차주(借主) 신씨와 조천덕이가 연대보증인이되어서 오월십일 에 이만이천원의 저당권(抵當權)을설정한후 그중에서일만구천원을 차거가지고 도주한사실이 발각되어 본월이일에 이르러서 은행에서도 부정사실을 발견하고 본정경찰서에 계출 하얏슴으로 동서에서는 경찰부 형사과와 타협한후권을 조선에 수배하야 범인을체포코저 로력중인 일방관계자두명을인치하야 소재를알랴 고엄중취조중이라한다

遊興費와旅費 愼鏞寅氏擔當

별항사긔사건에 관계한 신용인 씨는삼일본정경찰서에서오(吳) 사법주임의 취조를바더는데 신씨는 지주정련석으로 가장한범인권수희를 시내 다옥정 (茶屋町)에 거주하는고송종헌 (故宋鍾憲)의장남송재원(宋在元)의 소개로신용하야산본려관 (山本旅館) 기타여러곳에소개한외에 경상남도동래군(慶南東萊郡)에 거주하는김재봉(金在奉)이란자가 리면에 숨어서책동한 사실이 판명되엇는데 권조두범인의 주색숙박료(酒色宿泊料)약오백원은신씨가 담보하엿고 두범인과 관계한기생 이명은범인으로 부터현금이천원을 바든일도 판명 되엇다한다

第一銀行을相對로 九十萬圓의訴訟

은행측과예금측의주장배치로 故李容翊氏의預金한것

함경북도 명천군상가면(咸北明川郡上加面)에 거주하는 명망가 리현재(李賢在)씨는 제일은행(第一銀行)을 상대로 예금(預金)팔십구만삼천구백륙원의 반환청구소송(拂戾請求訴訟)을 동경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에 제출하엿는데 그리유는 리씨의선대리용익(先代李容翊)씨가 명치삼십오년십월이일에 이십삼만칠천오백삼십구원을 동은행경성지점(京城支店)에 예금하엿든바 동지점에서는 삼만원을불려(拂戾)한외에 금월까지 반케치아니함으로 이번에원리(元利)를 청구하는것이고 동은행에서는벌서지불하엿다고주장한다

楊州別內面에 凶器强盜出現

이십여원을강탈도주 警察은犯人追跡中

사일오전령시경에 양주군 별내면룡암리(楊州郡別內面龍岩里) 사백칠십이번지 부호리상뇌(李尙賚)(三二)집에 나히삼십사오세가량되어보이는 청년 두사람이침입하야 한사람은 대문에서파수를보고 한사람은 방안으로들어가서 권총(拳銃)과단도(短刀)를가젓다고 위협하면서현금을 내노흐라 하얏스나주인은 현금이업다고 거절하얏더니 집안으로들고 난니면서무수히 란타하야 중상을입히고 현금이십원오십전을강탈한후그동리 오백삼십구번지리필상(李弼相)집에 들어가서역시현금을요구하얏스나 맛츰 돈이업서서그대로가평(加平)방면으로도주하얏슴으로 소관양주경찰서에서는 각주재소와 순사까지소집하야 가지고 방금범인을 추적중이라한다

三百住民의怨府인 朝鮮土地開墾會社

지주에게는승락도안밧고 無理한埋立工事한다고

조선토지개간주식회사 (朝鮮土地開墾株式會社)에서는소화이년도부터 평북철산군 부서면디대(平北鐵山郡扶西面地帶)에서 매립공사(埋立工事)를하여오든바그회사측의 부당한 공사로방금그곳 삼백여주민의 여론이비등하다는바그사실인즉

▲扶西面梨楠洞鄭冠五의一〇一號田▲同一〇一一號林野의造林千餘株▲張亨楠의畓▲鄭錫豪의一〇八號田▲張宗化의一〇四號田▲鄭錫寶의二六二號田

등을지주의 아모런한 승락도업시회사의 자유로매립 하얏스며 또뎡석하(鄭錫夏)의토지일천여평을 회사의터부지라 주장하면서 만약개인으로서 이토지를사용할 사람은토디 대금륙백여원을 지불하고쓰라고 무리한요구를하얏고 또신곤동 리복동 선리동부평동에 잇는 인수도구는삼백여명 주민이 사백여년이래써오든 수도인데 그것까지 매립할계획이 잇서 주민들은방금 회사에대한 대책을강구 하는중이라한다(차련관)

五百餘名이駐在所에

씨름판싸홈으로 싸호든대상이몰내노라고 류리창과철책을파괴해 北靑端午節觀衆騷動

단오명절이일 주단오이튼날 오후여섯시경에 함남북청군신북청(北靑郡新北靑)에서 시민들이모아씨름을 하고잇든중 선동부박 권모(朴浩璣)와리석봉(李錫鳳)이가 사소한일로 말다툼이되어서 싸홈이버러지자 동리주민 오륙백명은 합리감정으로 리석봉의편에가담하여 형세가 위태하야 로 박은신북청(新北靑) 주재소로 피신하얏는바 군중은 륙백명은그냥 주재소에 쇄도하여피를내노라고소리치면서 주재소의 철책과유리창을 파산산히 바서버리고 계속하여 형세가엄중험악하려함으로 북청서로부터 경관이 수십명출동한 다수경관이 몰려가서 군중을겨우 해산식히고주모자 팔명을 인치하얏다 취조중이라고 하는바 무슨까닭에두사람싸홈에 이가치크게번젓나하는것은아즉미상하다한다

大北丸沈沒로 損害四十五萬圓

전남독거도(全南獨居島)북단에서신호 대북긔선회사 소속대북환(神戶大北汽船會社所屬大北丸)(一二三四噸)은 암초에 걸니어침몰되엇는데 손해액은 백미(白米)삼백오십톤목면(木棉) 등사천 조개(貝殼) 삼사톤기타화물이십오만원 배가 이십만원 합계사십오만원에 달한다고한다

技工組合員兩人被檢

삼일밤시내종로이정목(鍾路二丁目)에잇는제일양복점(第一洋服店)에서는 직공과 점주간에 분쟁이일어나 점주의친재에게 직공측은타협이잇섯슴으로 적기공조합에서는위원수인이실문갓스나김진상(金鎭祥)반군례(潘君例)이인은종로서에 돌연검거되엇다한다

槿花女校侵入한 强盜二人被捉

泰和校强盜와同一犯

시내인사동 태화녀학교(仁寺洞泰和女學校)와 안국동근화녀학교(安國洞槿花女學校)의긔숙사에차례로 범입(犯入)하엿든강도사건(强盜事件)에대하야 소관종로서에서는 범인수사에진력하여 오든바 작일밤에유력한혐의자로 려주읍내생(驪州邑內生)인 시내청진동십구번지 리긔호(市內淸進洞一九李起浩)(二四)와 공평동이십번지김근배(金根培)란두청년을 체포하야다가 엄중취조한결과 범행을 자백하엿다는데 도적하여간물건중 세개는일홈모르는사람에게팔앗다고하야 아즉 발견되지 안엇는데 이상두명은 벌서부터 지명수배(指名手配)중이든 자라한다

新義州農校 突然盟休

이십조건제출

신의주농업학교(新義州農業學校)에서는사일에그학교이삼학년생도가 돌연동맹휴학을하얏다는데 그들의제출한 조건은언론집회자유등 이십조건 이라한다(신의주지국)

基督信友會大會

조선의 긔독교신도들로 조직된 긔독신우회(基督信友會)에서는 오월삼십일 오후 여덜시반부터 시내인사동(仁寺洞)중앙례배당에서 대회를 개최하고본부리사(本部理事)와지회대표자(支會代表者) 다수가회합한석상에서 여러가지 중요사항을 토의결정하고임원선거(任員選擧)까지하고 아래와가티잇섯다고한다

▲理事=崔相鉉 朴熙道 朴淵瑞 全弼淳 玉璿珍 沈明燮 李容卨

▲評議員=吳華英 鄭仁果 金禹鉉 曹晩植 黃致憲 裵德榮 張利郁 金永勳 鄭春洙 白南薰 金善亮 申錫九 金洙喆

日中聯合의 大賭博團

그중에는 日本女子十七人

본정서에서는 이일오후 여섯시부터십시까지 사법형사 총동원으로 중국인진전산(陳殿山)을비롯하야 영정 일정목 음식점조총위길(篠塚㫖吉)(?) 대야류차랑(大野留次郞)등이정목 암천(岩田)(?)등일본녀자십칠명을검거하얏는데 상습적도박을하고잇섯다한다

藥種貿易商
天一藥房
京城府鍾路通一七九 電話光化門七五九·二〇五〇 振替京城三〇七七番
漢藥乾材 注文은
一、信用잇는곳
一、歷史잇는곳
一、直輸入하는곳
一、在庫豐富한곳
一、設備完全한곳
一、無漏具備한곳으로!!
天一藥房은斯界의大王

家庭에는一瓶式備置하시압
四時常備之消滯靈藥
天一靈神丸
價 小匣入 十錢 大匣入 二十錢 小瓶入 五十錢 大瓶入 一圓
藥材精良 藥効的確 藥界獨步

奉天唐草乾材部 貼藥專門 調製 藥은朝鮮商會 영아환 百腫根治 腫仙膏

各種蚊帳製造都散賣定價表 모기장 精選品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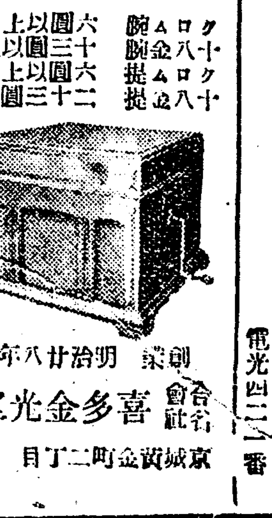
生絹蚊帳部 (曲尺)
長六尺廣四尺五寸 一件五、五〇
長六尺廣六尺 一件六、五〇
長六尺廣七尺五寸 一件七、三〇
長六尺廣九尺 一件八、〇〇

망사모기장 (曲尺)
一人用 長六尺廣三尺 一、七〇
二人用 長六尺廣三尺五寸 二、二〇
三人用 長六尺廣五尺 二、六〇
四人用 長六尺廣六尺五寸 三、〇〇
五人用 長六尺廣八尺 三、四〇
六人用 長六尺廣九尺五寸 四、〇〇
七人用 長六尺廣十一尺 四、三〇
八人用 長六尺廣十三尺五寸 四、八〇

實用蚊帳部
長六尺廣四尺五寸 一、八〇
長六尺廣六尺 二、二〇
長六尺廣七尺五寸 二、五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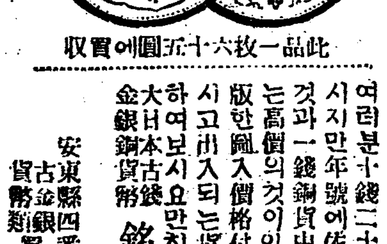
注意(色別)粉紅、綠、玉黃蚊帳十件以上注文時는五分割引提供함
成信商店 京城府鍾路二丁目八〇

道理紗改良廣告
敬啓者年來弊店에서織造하는道理紗濟和、盛和、錦和、美和는品質이不良하고또한尺數가不完全하야衣服裁斷에不備한點이多有하든바弊店에서多年遺憾으로思하옵고此의改良을專心考慮하와形式的商標를改正함보다實際的內容充實을爲主하야商標는從來대로하고品質內容에對하야左記와如히改良하옵고今年부터所期의優良品을提供함니다
一、品質改善
一、尺數延長 (尺數는從來보다改良하야周衣一件에適當케함)
此兩點에對하야는弊店에서責任을負하옵고江湖諸位의게謹告하오니從來道理紗의商標는何等改正이無하오나其內容에對하야品質改善尺數延長한點을理解하시고또는安心하시고倍舊愛用하야주심을仰望하와此에謹告하나이다(改良二字印에注意)
香港 會和盛主人謹白
販賣店 京城府觀水洞 錦成東 電光四二一番



家庭用蓄音器二十五圓以上種極
日本一로본萬年筆一圓廿錢부터八圓外지
クロム八十 腕 六十圓以上
金八十 腕 三十圓以上
クロム 提 六圓以上
金 八十 提 三十二圓以上
創業 明治廿八年 直輸入都賣小賣
合資會社 喜多金光堂通信販賣部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長一〇一 振替京七八二五番

水晶印
◉認印 透明水晶小判形 印材의苗字篆刻 時計提 金一圓 一寸丈 金一圓 以上桐箱入 一寸三分 金一圓六十錢 一寸五分 一圓九十錢 二寸 金二圓四十錢 以上本皮上싹우入
(15) (19) (22) (20)
乙丁字體는番號로△印面의大小는御指定과如히△前金又는代引注文四日以內로送呈함 (送料十二錢 代引廿三錢)
◉實印 透明水晶角丸印材을指定과갓치篆刻(四字外지) 一寸丈 金一圓五十錢 一寸五分 金二圓二十錢 以上桐箱入 一寸三分 金二圓二十錢 一寸五分 金二圓七十錢 二寸 金三圓三十錢 以上本皮上싹우入
(12) (6) (7) (10)
水晶印其他水晶製品目錄申込次第送呈 山梨縣西八代郡大河內村 振替東京貳貳壹七八 山梨水晶株式會社



此品一枚六十五圓에買收
이런돈버리
여러분十錢二十錢五十錢銀貨를額面만쓰시지만年號에依하야數百圓도되는高價의것과一錢銅貨中에도百圓以上으로곳팔니는高價의것이잇슴니다今番文錢堂에서出版한圖入價格付의目錄을各家庭에備置하시고出入되는貨幣를調査하야큰돈버리를하여보시요만히사드립니다
大日本古錢 金銀銅貨幣 銘鑑一冊 (三十七錢 送料並) 切手는四十錢도보내시요
安東縣四番通七丁目三番地 古金銀貨幣類買入所 文錢堂 振替京城一八七五八番

生徒募集入學隨意 學費低廉 前京城自動車講習所創立十週年貢獻에依하야昇格記念
總督認可 京城第一自動車學校
校舍新築 容充實理想的設備 新シボレー 新フオード ハクソン 其他實車 廣大한實習場에서教授함을보라 二錢切手封 [illegible]

口中胃腸內殺菌劑(衛生口錠)

カ가オ오ールル루本舖에서

諸位의保健에對하야相談합니다

1 **本紙愛讀者諸氏**는細心의注意를하여決코病이侵犯치안토록左揭事項을注意합시다

2 **病毒의大部分**은空氣或은飮食物를通하여입으로드러오는外닭에病을未然에防止함에는**第一입에서부터**注意하지안으면안됩니다

3 **諸位는盜賊을豫防**함에도집大門에빗장을질느지안습니가、그처럼病毒의가장侵入하기쉬운입에는此等病毒을막는有效한藥劑를잠수시는것이빗장단속以上으로必要합니다

4 **口中의빗장**을本來의使命으로하고完全히그使命을다하고잇는것이**口中胃腸內殺菌劑カオール**이입니다

5 **口中胃腸內殺菌劑カオール**의有効한使用法을말슴하오면**諸位外出時特히電車、汽車、劇場等의雜踏中、飮食後**

6 本劑의二三粒을口中에너으시오、그러면精神이爽快하고病菌을體內에吸收하기前에容易하게滅殺할수잇서아조安心됩니다

갓치使用하시

[illegible]

製劑顧問 [illegible] 松月 [illegible]

一、**口中及體內殺菌劑**

空氣或은飮食物과함께口腔으로侵入하는黴菌即지부스、虎列剌、流感、結核菌等其他의病菌病毒을口中及胃腸內에서完全히殺菌하여此等傳染病을豫防함

二、**健胃整腸劑**

胃를健全히하고또그消化力을亢進하며食慾을增進식켜下痢、腸加答兒等에整腸劑는殺菌劑와互相協力하여治療함

三、**强壯及興奮劑**

身體를健壯케하며特히心身의疲勞한때는各機能을興奮식켜氣力을回復旺盛케함

四、**清凉及美音劑**

그特有의芳香으로口中의惡臭、惡熱을除하고祛痰劑는咽喉의乾燥를均霑、音聲을美化、따라서精神을爽快케합니다

本劑의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國旗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丁字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二圓)	二千二百粒

カ오ー루는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습니다

只今金五萬圓을提供하야
應募者全部當籤되는
保健衛生標語를募集中이오
詳細는近處藥店에問議하시오

本舖 讃岐安藤井筒堂藥品部 東京日本橋區水天宮前 振替東京二四四五番 電話茅場町[66]二四四六番

005009

한글 綴字法講座(몃)
장지영

(十)字體變化

【註】명사, 형용사, 동사 등 각 품사의 의미를 다르게하는데 또는 그 사체(詞體)를 바꾸어 다른품사로 만들때에는 여러가지 형식으로 되는일이 잇으니 이를테면 얼(凍)이란 동사의 『음』을 붙이면 얼음(氷)이란 명사가 되며 내(煙)라는 명사에 『ㅂ』을붙이면 냅(煙烟)다는 형용사가되는것과같은 따위가 많이잇읍니다 이런말들의 원(語源)을 모르게되어 문법을바루잡는데 거리낌이되는일도 적지않음으로 이알에 이와같은 본보기몇개를 들어보랴고합니다

(一)名詞되는것

큼(大) 형용사『크』에 『ㅁ』을 붙여 명사로 된것

작음(小) 형용사 작에 음을 붙여명사로된것

(注意)어떠한 형용사에든지 『ㅁ』이나 『음』을붙이면 명사로 바꾸이는데 형용사끝자에 바침이 잇으면 음을 붙이고 바침이 없으면 『ㅁ』을 붙이게됩니다

힘(白) 푸름 누름 착함 갊(長) 닮(甘) 잚(細小) 헒(舊落) 섦(不熟) 모짊(惡) 둥금(圓) 거칢(粗) 밝음 붉음 검음 많음 적음(少數)

이우의 말들도 다 형용사를 바꾸어 명사로된것입니다

길이(長) 넓이(幅) 높이(高) 깊이(深)

형용사 길에 이를 붙이어명사로된것

이우의 말들도 다 형용사에 『이』를 붙이어 명사로된것

키(身長)

형용사 『크』에 이를 붙이어 명사로 된것인데 두소리가합하야 『키』로됨

부피(體積)

형용사부프(膨大)에 이를붙여 합용하야 명사로 된것

무게(重量)

형용사 무겁에서『ㅂ』을줄이고다시 『이』를붙여 합용하야 명사로된것

두께(厚)

형용사 두텁에서 『ㅂ』을줄이고 다시 『이』를붙여 합음하야 명사로된것

質疑

【問】좌귀한 여러가지말을 어떻게 쓰어야 좋습니까

一, 성인 성명 (聖人, 姓명)
一, 성인 송명 혹은 승인 송명
一, 영원 경찰서 (永遠, 警察署) 혹은이웅원 기웅찰
一, 션 완하다 (善, 畯하다) 혹은 츤하다
一, 적다(少) 혹은 죽다
一, 여 려 (呂) 혹은 이

이외에 이러한 말이 많응니다

【答】성공(成功)이란『성』과 성인(聖人)이란『성』이 듣기에 그음이얼마쯤은 다른것같으나 실상은 음이다른것이 아니라 그의조(調則長短)가다른것입니다 꼿성은 짜르게 내면 성공의『성』이오 길게 내며 성인의『성』입니다 그러나 『승』파는 그음이 아주다릅니다 이웅과 영은여간다른게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을읽을때에는 성인 성명 영원 경찰서 선 천하다 적다로쓰는것이 옳지오번대로 장음은 그자인쪽옆에점을찍어서 표하는것이 좋습니다 마는 놀쓰는글에 이로컨을 찍기는 지커분도하고 거북도할것이니까 자전(字典)에 나표하고 일반으로 쓸때에는그만두는것이좋습니다

이를테면 얻었다 같은말얻(騰)할때와 얻어(得)할때와 지고드 얻었다(讓)할때의 얼면(溑)할때의 그발음을 생각하여보십시오 지금말을 하신대로하면 얼었다 울면 어렇게 두가지로 쓰겠읍니까? 여기서도 소리를 낼때에 길게할과 짜르게 할 구분은 이러한 다름이 생기는것을 밝게알수있읍니다 『얻면』한는말은 가상(假想)하고하는말이기때문에자연히 더듬노라고 그소리가길어지고 『얻었다』는내가이미아는 사실로 남에게 알어주는말이기때문에 자연히 명쾌하게하노라고 짜르게 발음되는것입니다 『呂』字의음도『여』거나『려』로될것이니 그냥漢文字로만볼때에는 물론 제본음대로 『려』라고쓰는것이옳고『呂』가 자가뭍어가서된 固有名詞로 아주조산말된것은 (여서방 같은것) 지금사람의 실제발음대로 『여』를쓰는것이 좋습니다

장지영

國初의建都問題(一)
李丙燾

一、序說

새로組織된政府로 國號(政治的名稱)의變更 乃至國都의遷奠을 實行함은—近來露西亞소비엣트政府와밋支那의國民政府에잇서서 例를보이엇지만—古來支那를 中心으로한東洋諸國史上에잇서 더욱普通으로보는 常例의하나이엇다 高麗恭讓王四年(一三九二) 同王의讓位를바드신我 朝鮮太祖에서도 또한이例에빠지지는아니하엿스되太祖에서는 (特히考慮하시는바잇서)

即位 初에는 當然히 고칠 國號는 當分 前代로高麗라稱하고 典章制度도 다舊에仍하야 一見 舊王朝의存在 延長과가튼感은 줌에不拘하고 國都遷奠에對하야는매우일즉부터 留意關心하신바가잇섯다 國號를正式으로고치어 『朝鮮』이라고하기는 太祖即位二年二月이엇슴에對하야 遷都의敎를 내리시기는 即位하신지 아직一個月을 넘지아니하야서의일이엇다 勿論 國號와가튼것은 當時支那의明廷과 一旦交涉하야 其裁擇을乞하는일이잇섯든때문에 多少의遲延을生하엿다고하겟지만 그交涉은即位後四個月만에 처음으로이러낫스며 또이것도 이며明으로부터 『國號를무엇이라고고치엇느냐』고 質問을바더비로소이러난것이엇다 어떠튼太祖에서는 即位當初에잇서서

國號 改定과가튼것은第二次的關心事로되이시고 그대신遷都問題를 第一次的急務로 생각하신것가타다 그러나 이럿케緊急視한建都問題는 實相容易히 如意하게進行되지아니하야 重臣間에는자조反對의 議論도이러낫고또擇地에對하야도 或은漢陽(今京城)或은公州鷄龍山 或은今京城의西인 毋岳等地가其候補地로擬案되야 太祖ㅣ親히相地키爲하야 여러번車駕를번거럽게하섯스며 鷄龍山에는一時土木의役까지보게되다가 中途에이를停止하는運에 빠지는等자못여러가지 波瀾을重疊하야거우으即位三年十月에 이르러자금京城인漢陽에 建都의理想을實現하게되엇섯다 漢陽의新都는實로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莫大한勞費를 드린바의果結이엇다 그러나 漢陽은그후얼마아니되야 또移都의脅威를바더

定宗 即位元年에는 新都를버리고 舊都松都로還御하얏스며 太宗이 定宗의禪位를 바드심에미처서는또새로히遷都의 地를擇할敎를내리시매 거의前日同樣의種種한議論이 反復되야ㅣ一時는松都漢陽兩京의制를 取하다가ㅣ同王五年十月에는畢竟漢陽의新都로 再次遷奠됨에이르고말엇섯다 國初建都問題의顚末을조려말하면 大槪右와갓지만 이顚末의眞相을 仔細히究察하자면 不可不다시節項을난호아 敍述하여야되겟는데 이에잇서 吾人이더욱闡明하랴고 하는바는 太祖太宗에서 이建都問題를爲하야왜어떠케心身을煩擊하셧스며 擇地에對하야는무슨까닭으로議論이一致치아니하얏스며 또終으로漢陽의地가 累次遷都의 脅威를 바드면서도 맛츰내

擇定 의的이되고만것은 문득(抑)어떠한理由와 關係에基因함인가함에잇다 이작은論文의主旨는 實로이에잇다고말할수잇다

또한가지 미리말하야 둘것은 在來野史에傳하는 國初奠都에關한 이야기가운데는 別別荒誕한 怪異한것이 만히잇서 지금外지도 이를事實로밋는人士가 더러잇지만 이는목칩게 閑話할때의 古談材料밧게 되지못하는것이니 이를眞正한歷史的事實로 미더서는아니된다 그럼으로 나는純然히 正史實錄을 中心으로하야 間間信用할만한 他記錄을 參考하야서 이며事實의眞相을 多少밝혀보랴한다

二、太祖의建都問題

(甲)最初의移都計劃

壬申 秋七月旣望에 登極하신 太祖에서 不過一個月內에遷都의 敎를 내리섯다함은 우에도잠간비치엇지만 이를實錄에徵하야보면 即位元年 秋八月壬戌(十三日)條에

敎都評議使司『移都漢陽』

이라하고 또同月甲子(十五日)條에

遣三司右僕射李恬于『漢陽府修葺宮室』

이라고보여잇슴으로 分明하다 그리하야 其最初遷都의目的地는當時漢陽府即今日의京城府이엇든것이 또한이에依하야判明된다 世上에서는 普通 公州鷄龍山을 그最初의候補地처럼 미더왓지만 이는野史의傳하는바요 正史에는鷄龍山보다도 漢陽이 먼저압섯든것을 말하야준다

上文 中『修葺宮室』은 勿論新宮의創造를 말함이아니고 在來의것 即前朝以來의舊宮을修理 或은增築함을 意味한것인데 前朝의舊宮으로도 (漢陽에는)數個處가 잇섯슴으로 其中어떤것을가르침인지 仔細치못하며 또이들記事만으로서는 或은嚴密한意味의 新都經營이라고 看做치 안흘는지모르겟다 그러나 同年九月 太祖에서 平州(平山)溫泉에 行幸하섯슬에 侍中裴克廉 趙浚等이 溫泉에가서 啓하되

竊見漢陽宮闕未成 都郭未完 扈從之人尋入民戶 天時向寒 民無所歸 『請待營繕宮室城郭 布置各司 然後遷都』

라고하얏슴을보면 이며漢陽의 新都工事는 單히宮室을 修葺하는일에만 웃치지아니하얏든것을 알수잇는同時에

宮室 都城等의建築乃至各官衙의設置에 이르기까지의經營이 잇섯든것이다 吾人은 일로써 홈흉한 新都의經營이라고 認定할수잇스며 또한即位 不過一個月內에 遷都의敎를 내리신것이라든지 右裴克廉等의 奏言의反面에잇서서보면 太祖의遷都에對한 燥急하신擧動이게셧슴을 살필수잇다

中國의名作小說 『紅樓夢』의考證(七)
梁白華

무슨作品이나 이를 考證하라하면 그原文에 나아가 말아니할수업는것이다 이제 紅學家의問題삼는 本書第一回의 一節을 抄錄한다

此開卷第一回也 作者自云曾歷過一番夢幻之後 故將眞事隱去 而借『通靈』說此石頭記一書也 故曰『甄士隱』云云 但書中所記何事何人? 自己又云 風塵碌碌 一事無成 忽念及當日所有之女子 一一細考較去 覺其行止見識 皆出我之上 我堂堂鬚眉 誠不若彼裙釵 我實愧則有餘 悔又無益 大無可如何之日也! 當此日 欲將已往所賴天恩祖德 錦衣紈袴之時 飫甘饜肥之日 背父母敎育之恩 負師友規訓之德 以致今日一技無成 半生潦倒之罪 『編述一集』 以告天下知人 我之負罪固多 然閨閣中歷歷有人 萬不可因我之不肖自護己短 一並使其泯滅也 故當此蓬牖茅椽 繩牀瓦竈 未足妨我襟懷 況對着晨風夕月 階柳庭花 更覺潤人筆墨 我雖不學無文 又何妨假語村言 敷衍出來 亦可使閨閣昭傳 復可破一時之悶 醒同人之目 不亦宜乎? 故曰『賈雨村』云云 更於書中間用『夢』『幻』等字 却是此書本旨 兼寓提醒閱者之意 (亞東圖書館本에依함)

以上은本小說의 첫머리로 所謂『開宗明義』라는것이니 文中의『甄士隱』(即眞事隱과 同音으로 참事實은 숨긴다는뜻)과 賈雨村(假語村과 同音이니 即딴말도 지엇다는뜻)은 空의人物로學者間에적지아니한 議論을 일으키는 것이니 즉 참事實을 숨기고 딴말도 지어엇스면 背後에참事實이잇는 것이니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는것이다 그리하야 여러紅學家는알에와가튼主張을하얏다

＝本小說의＝

(一)紅樓夢의書中人은 모다當時의名伶을 影하얏다는것
(二)金陵張侯家의일을 記한 것이라는것
(三)康熙朝의宰相明珠집안의일을記하얏다는것
(四)和珅을 諷刺하야 지은 것이라는것
(五)讖緯를말한것이라는것
(六)金瓶梅를影하야 지은것이라는것
(七)淸世祖와 ＝董鄂妃의＝ 故事를記한것이라는것
(八)康熙朝의政治狀態를影한것이라는것
(九)作者曹雪芹이 그生平을 自述한것이라는것
(十)順康兩朝八十年의歷史를 包羅하얏다는것

그런데 이제 이여러學者의 主張하는말을 紹介하야 批評을 加하기前에 먼저한가지紅學家의迷妄을 깨는말것이잇스니 그것은 即아페 抄錄한原文一節이 紅樓夢小說의 本文이아니요 實은 作者의評文인 것을 잘못알고 論爭하는것이다 이것은 日本의書伴博士도 일즉이 指摘한일이 잇거니와 이一節을가지고 紅樓夢을 作者의自敍傳이라고

＝主張하는＝ 胡適之博士도 最近에『脂硯齋重評石頭記』라는本小說의 最古本(?)을發見하야 이를 是認하얏다 그러나 最初 이를發見한書伴博士는 戚本(上海有正書局發行의所謂原本이라는것) 第二回 첫머리를가지고 指摘한것이니 그原文은 알에와갓다

此回亦非正文本旨 只在冷子興一人 即冷中出熱 無中生有也 其演說榮國府一篇者 蓋因族大人多 若從作者筆下一一叙出 盡一二回不能得明 則成何文字 故借用冷子一人 略出其文 半使閱者心中 已有一榮府隱隱在心 然後用黛玉寶釵等兩三次鋪染 則耀然於心中眼中矣 此即畫家三染法也 未寫榮府正人 先寫外戚 是由遠及近 由小至大也

＝若使先叙＝ 出榮府然後一一叙及外戚 又一至朋友 至奴僕 其死板拮据之筆 豈作十二釵人手中之物也 今先寫外戚者 正是寫榮國一府也 故又怕 反擾擾 閃縱即爲賈夫人一死 使黛玉入榮府之速也 通靈寶玉 於士隱夢中一出 今又於子興口中一出 閱者已洞然矣 然後於黛玉寶釵二人目中極精細一描 則是文章鎖合處 蓋不肯一筆直下 有若放閘之水 然信之爆 使其精華一洩而無餘也 究竟此玉原應出自釵黛目中 方有照應 今預從子興口中說出 實雖寫而却未寫 觀其後文 可知此一回 則是虛敲旁擊之文 則是反逆隱曲之筆 詩云 一局輸贏料不眞 香銷茶盡尙逡巡 欲知目下興衰兆 須問旁觀冷眼人

씨나리오 노래하는시절 [3]
安夕影作

....撮影中....

길용이(上體)거려가다가 슬그머니머물러서서(移動中止) 옥분의노래하는편에 귀를 기우리는듯할며——옥분의노래하는 얼굴이 이화면(畫面)에 은연히 낫타낫다가 사라지며 길용이 경쾌한 미소를 쉬다 『카메락上體』로부터 下體로도 쇠러내린다—여기서 다시 移動開始)길용의다리가 가만가만히 움즉이며거러서 옥분이 노래부르고안진 느틔나무 뒤까지에 이른다(移動止)

길용이 느틔나무에 기대여서서 하늘을처여다보며 옥분의노래를 도취해듯는다—황홀한표정 우숨을띈 그리고무엇인가 참을수업는듯한표정 여기에안커서 노래부르는 옥분의엽 자태(側面)가 얼려서보힌다

노래를맛친 옥분이 처녀로서의 오노(懊惱)에 타는드시화면밋호로부터 나타나서 던지시 몸을조금 뒤틀녀이러나서는 느틔나무를휘고 돌라한다

느틔나무를 가운데두고 옥분이와 길용이가 좌우편으로나타나며 시선(視線)이 마조친다

뜻하지안은 사나희와 시선이 충돌된옥분은 불시에어든 못그러움에 고개를 해ㄱ숙이며얼굴을조그만두손으로차버린나(大寫)

길용이 얼쩍은드시 고개를약간숙이고서 싱그레우스며 승거운거동——그러나던지아시 미듬숙 그렴고 떠나가랴고도아니하는 옥분의 자태를것눈으로본다(大寫)

고개숙인채서서 피차에 떠날것갓지만으면서 망서리는듯 한두사람(여괴서카메자를 下眩로 쓰느나린다——길용과 옥분의다리사히에옷둑이안저서 두사람의거동을 갈려가며처어다보는바둑강아지——옥분의 집신신은 어엽분버슨발이얼시락거리다가한편으로몰려간다 바둑이도 따라간다길용의다리도 돌처서 퍼거름나아가다가 멈처슨다——(바구니가노혀잇다)

길용이 새삼스럽게 왜다른드시사방을두리번거려살피면서 눈을크게뜨고탕패한드시황급한표정

(字幕)『이거돼지들을 생각지안엇네 그려——』

도야지 예들이 열불이헤려저잇다

길용이 옥분이가 간쪽으로머리를 돌려 엣긋웃고는다시 도라서서 한편으로 분주어가 버린다(바구니만이 멩비인느티나무를 직히고잇다)

내ㅅ가 나무가듬 청등청 서잇는곳에 옥분이가 이르더서 한나무뒤에 몸을숨기고 길용이가가는 편으로향하야 나무뒤로부터 얼굴만 내여밀어 방싯우스며 바라본다ㅣ 붓그러운얼을 당한드시……그러나낫쳐서는 안될 귀중한보배를일흔드시 서운한 표정——바둑이 쇠리를치며서서잇다

옥분이 바구니를 이즌것을이처야 왜다려나무뒤에서 독뛰는드시 나아오며 급한거름으로간다 ——바둑이도 따른다

느틔나무압흐로 옥분이나타나며 바구니를 집어들고느틔나무에 몸을숨기는드시 바득이며여서서 길용의 가는편을 조심조심이 본다

길용이 가든길에,잿도리켜서서 옥분의 서잇는쪽을바라보고는씽긋웃고는잿도라서 가랴다가 여튼곳을 핫드되여업더진다 황망히 이러나서옷의흙을 떨고는 옥분이잇는곳으로핼도리켜보고서붓그러운 드시 승거웁게 우스며다러난다

옥분이 잿도라서서 느틔나무에 얼골을파뭇고 엇개충을추며몸시웃는다

활쏘는女人
李貞淳

활쏘는 女人이여
건너편 관역을 겨누어
힘껏 당기는 그대의 화살은
理想을 맛치려는
實現의 화살이니
○
관역을 맛치리라는
굿세고 統一된 信念은
약한 팔의힘을 超越한것이배
偉大하고 힘잇는
實現의 화살을
그대는 귀히녁이라.
○
오— 활쏘는 女人이여
東天에 솟는 저太陽을 쏘으라
太陽面을 凝視하는
그대의 壯한 自姿는
나는 바라봄며
시위人출을 쏘코라도
그대의 쏘흔 화살은
太陽面에 힘잇게 꼿치리니
○
따우에 큰힘으로
하날의 太陽은 왜여지리라
오— 힘세인 화살을
光明을 쏘는
現實의 화살을
그대는 귀히녁이라

醫學上으로본 產兒制限論考(七)
醫學博士 鄭錫泰

受胎와季節의 關係를보건데一年中第一만흔受胎率를 보이는때가 엇더한時季인것으로 硏究한이는마일들氏이다 勿論氣候風土에따라 多少差異는잇는것이지만 同氏가獨,佛,伊三個國으로부터 約二十五萬名의갓가운生產數로써研究한表에依하면 四月五月六月이第一受胎가만흔것을 알수가잇나니 即봄(春)철에 多數히受胎됨은 어길수업는 事實이나 이제其統系를表示하면

(受胎月)	(百分比例)	(順位)
四月	一〇、九〇	第一位
六月	一〇、六七	第二位
五月	九、四五	第三位
三月	八、七四	第四位
二月	八、四八	第五位
一月	八、二〇	第六位
七月	八、〇五	第七位
十二月	八、〇四	第八位
十一月	七、二〇	第九位
十月	六、九七	第十位
八月	六、五二	第十一位
九月	六、一〇	第十二位

이以上의依하야 推測하건데七八、九月이 第一受胎力을가지지못함을보이고잇스니 이는大概盛夏의時節에 사람들이모다倦怠

疲勞가 만음을따라 性慾조차減退를하게되어 生殖力의低力을면치못하는바이다 何如間氣候가人體에게만흔影響을주는것이確實하며 四、五月春頃에는萬物이皆甦의힘을맛는一年中好時節임으로 人生의生活力조차 自然히旺盛됨을그다지疑訝히생각할바는안일것이다

只今부터는產兒制限에關하야 엇더한 境遇에處한사람에게實施할이可할가함을생각지안흘수업는것이니 이에도엇더한程度까지라할만한境界線이잇슬것이다 그야말노

盲目的 으로產兒制限을 贊成할수도업는바이요 多少生產의餘力과 子女敎育에餘裕가잇다면 可及的多產을하야서 우리民族의消滅됨을 求하여야할것이니 쳐음부터못外지產兒制限의絕對的必要를論할바는아니다 或是法律上 社會上制裁를 一一히밧게된다면 人格上信威를너무나無視하는것이되고만다 그럼으로 이러한點을

잘參酌 하야産兒制限을 힐사람아니하여도조흘사람 그러치안흐면 人工的姙娠을 여야할사람을 一一히 區別한後끗하여 理論上冗長한 論爭을할必要는업슬것갓다

六月農村
朴仁範

하늘빗처 조흘시고
오이꼿도 좃타
보리밧헤 정엣소리
첫머기 섞자
살구가튼 아낙네의
맨발이 좃타
○
바지게에 푸른모와
베잠뱅이 좃코
모심으든 애기아베
나오자 마자
점심그릇 미려놋코
거든 두팔도
거머리 떼여주는 아낙네의
개우동한 머리좃타
—곳—
一九三〇六月二日

◇海外文藝消息◇

『피·터ㅡ一世』에 對한 左翼 · 批評家의 · 批難

◇莫斯科藝術座의 分身인第二藝術座가 最近『아례세이·톨스토이』의 『피—터ㅡ一世』를 上演하얏나 藝術的見地에서 본다면 非常히 훌륭한 上演이엇스나 左翼批評家는 演劇으로서價値업는者이라고 一齊히 猛烈한非難을하얏다

◇現在『쏘비엣트』에서는 唯物演劇뿐만아니라 엇던藝術이든지 多少間政府의政策實現에助力을하지안는것이면 藝術的價値가업다고共產主義者는생각하고잇는모양이다 이때한立場에서『피—터ㅡ一世』는이가튼藝術的價値를 가지고잇는것이아니고『피—터ㅡ』大帝를中心으로한當時露西亞의 政治的社會的大變動을 오즉史實에 忠實하게쓴것에不過하다고본다

◇그래서 左翼의사람들에게 演劇이 不滿하게생각될것은 元來利益이다 共產主義聯盟 機關雜誌의批評家『쎄지아리스』는 이作이現代『쏘비엣』의『푸르르리아』革命에 何等寄與하는것이업고 도리허反革命的이오 게다가『쎄르조아』의 示威運動을 意圖한것이라고 痛罵하야 劇場에 對하야는 上演의中止까지를 要求하얏다한다

作者의辯(四)
短評에抗議함
蔡萬植

뛰어들어갓다는것은 順川령감의방에 山窟이가 復讐를하려뛰어들어갓다는 意味이겟는데 山窟이는 決코 그리하지 아니하엿다 參考삼어『山窟이』의 맨마즈막의一部를 여긔에 옴겨노코보자

『그는 그자리에 쩍인듯이 서서 한참이나생각을하다가 주먹을 가즉어려쥐라고 불人근쥐이고 눈이뒤여지도록 사랑방을 흘겨보앗다(中畧)…… 自然描寫입으로) 산동이는 발人길을돌려괴운차게 버둥박그로 걸어나갓다』

以上이다 以上에 어데 山窟이가 順川령감의 男으로 뛰어들어간것이잇는가?

나는 決코 山窟이로하여금 아모런 社會的效果가나타나지 아니하는 다만個人的 분푸리에지나지못하는 復讐를 식히지아니하엿다

그는 爲先 滿洲로간다 갓다가 ××과××을가지고 도라와서라다 도라온그는 第一로는『人工火山』으로 自己의社會的任務를하엿다 다음에 그는『당』으로써 安洞阿男宮에『피』를흘려다 後者는 社會的과個人的意味가包含되어잇다

이러한活動을 더자세히쓰지 못한것이 엇덥수업는事情이라는것은 우에서도 말을하여두엇다

作品을 자세히읽지도 아니하고 왕청된斷評을 나리엇스니

◇

쓰는로 蔡氏는 『山窟이가왜限死코아니나가라는 玉섬이를내어보냇는가 『고만두어라내가가마 하고 이불을번人쳐듣고나가가서 무슨필게든지데이면될것이아닌가?』다고하엿다 그무슨소흘인가?

新刊紹介

◇我觀(六月號) 三宅雪嶺氏主筆 內容社會苦와犯罪數篇을 비롯하야勞働爭議의現實的把握, 支那革命의膿病性(中山優) 第二次世界戰의危機(大崎厚夫) 쏘비에트聯邦의失業問題(佐藤定夫)隨想漫語等其他內容豊富 定價五拾錢 發行所東京京橋區銀座西五의三我觀社 振替東京六六三九〇

◇處女업는나라(石橋瀧彦譯) 맑쓰主義批評家로서登場하라는『베링갈버드』原著의 譯인데戀愛結婚性問題에關한批判으로 特히世界唯一한푸로레타리아의『나라』露西亞의그것을本書의內容으로한것이다 (四六版二六三頁)定價一圓廿錢發行所東京神田區今川小路一ノ三白鳳社振替東京八一二〇三

◇大衆藝術(六月號)思想업는繪畫(槇本)新聞과插畫(佐近義弼)(在田)其他內容豊富定價五十錢發行所東京芝區白金三光町二七三同社振替東京六〇三七三

◇東洋經濟新報(週刊)不景氣打開策의研究號 定價七十五錢發行所東京市牛込區天神町六同社振替東京六五一八

…祝朝鮮日報平澤支局發展…

振威郡古德面杜陵里 安在鳳
古德面杜陵里 金榮相
古德面文谷里 崔仁燮
安仲市 各種雜貨商主 朴來宇
安仲市 釀造主 朴漢植
浦升面內基里 無名氏
浦升面晩湖里 趙吉九
文德面雲井里 李敏浩
西井驛前 斗南理髮館 權寧國
靑北面玄谷里 朴致文
靑北面玄谷里 李起鶴
西井驛前 車公烈醫院
安城郡元谷面月谷里 金演圭
丙南面通伏里 金思榮
松炭面茅谷里 李蘭秀
松炭面佳才里 朴鍾甲
西井驛前 黃智燮
西井驛前 柳晥鉉
西井驛前 滿月釀造場
靑北面魚沼里 金學奎
魚沼里 無名氏
金斗基 無名氏
梧城面梧城里 金台淵
安仲市 司法代書 李榮緖
古德面事務所 安在民
古德面文谷里 白建基
杜陵里 文春鳳

資本金貳百万円 朝鮮信託 預金は信託へ

有利 仕事 收入確實 職會二錢要賣物見本添 紫內書進呈, 特約代理店募集 男女自宅 通近不問 大阪市港區 石田町 錦工堂 本店

五月三十一日晝間부터超特別大興行
東洋映畫社超特作映畫
原作 崔獨鵑 脚色 李瑞求
僧房悲曲 全十卷
民謠作歌 劉道順 監督 李龜永 撮影 李明雨
李慶善 李遞雲 金蓮實 主演
◇조선일보 지상에 연재되여 百萬의독자를울리고 영화로서장차 千萬의人士를울니고
◆월리암폭스特作映畫 야生名篇 라울 월슈監督
◆메트로꼴드윈特作映畫 無賴漢 七卷 죤쓰리아와 돈헤리 主演
冒險兒 六卷 릴 막크 이 主演
▽注意特別料金每夜七時半부터 土日兩曜는晝夜
高級常設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六月五日부터特別大公開
메트로꼴드윈메야社超特作
나는名探偵이다 全八卷
監督 제스다 엠후란그린氏
칼 마세린데ㅡ嬢 조지 케아사 氏 主演
△메트로꼴드윈메야社超特作
新아ㅡ靑春 十一卷
監督 엘스톤두버치 氏
노라 몬나바로 氏 마샤ㅣ라 孃 主演
絶對自信篇은이것입니다 예는五月! 사랑은靑春달고쓰고적적한 및호로古城의아레로 걸른王子와 아름다운고도純眞한旅舍집딸과 달콤한사랑그것은두사람의靑春과함게 聞의中心에언제든지언제든지잇지못할映畫입니다 꼭보서
◎其他喜劇數種이잇습니다
△豫 告▽
아할映畫 어머니와아들, 아스팔트, 아리바이, 여기가天國이다, 沈默의전, 무엇이그女子를그러케만들엇더냐, 亂鬪王달맛치, 旋風兒달맛치
파라마운트社
朝鮮劇場 電話光一二八一

二大名畫大公開
當五月一日(日曜)부터晝間
유나이텟트아지스會社超特作大驚異篇
大名畫 눈 쓸 때 全拾卷
原作 엘환시스마리온女史
鬼才 빅타ㅡ셰ㅣ스트롬 監督 의大作品!
빌마 방키 孃 主演
妖艷의修道院! 피여나는處女! 淨域의修道院! 幻想은幻滅을對하고錯覺은狂想을 에안으니안라가온그는 그늘얼마나만엿더냐? 人間愛慾의一面
유나이텟트아지스會社超特作
大映畫 美國人二人行脚 寶玉篇

原作 도날드맥구기니 全十卷
名匠 루퍼스이라 도 氏 監督
美姬 월니암보아스라ㅣ 孃 主演
名星 해리아스ㅣ부氏 助演
大 豫 告 南中王, 그래이드갑보, 學窓을나이서, 虛低의警報, 肉體의道
市內 寬勳洞 優美館 電話光三九五番

우리가사는이ᄯᅡᆼ은 어ᄯᅥ케생겻나
하나님은엿새동안에지엿다하나 긔실은몃억만년

이ᄯᅡᆼ은 어ᄯᅥ케되엿나? ᄯᅩ예날이나 먹엇나하는것은 누구나알고십흔 바이며 ᄯᅩ생각하면생각할스록 모를것의하나로 밈우워지고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구 나모다 그러언제ᄭᅡ지이러케 잇는것이려니하는 무관심한 중에서지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사실이ᄯᅡᆼ은 어ᄯᅥ케생겻나 구약창세긔를보면 하나님은 엿새동안에이우주의 천지만물을 말슴한마듸로 다지으셧다합니다 사실녯날녯날 아조녯날 일임으로아모도 그예일을본사람도 업고말하는사람도 업서 어ᄯᅥ케되엿다는것을 도모지 알길이업는것입니다 그러나다만오늘날 극도로발전해가는과학의 힘으로『그러케되엿겟다』는것만은

말할 수잇게되엿것입니다 그것은즉 하나님이엿새동안에 말슴으로 이ᄯᅡᆼ을만드럿다는거와는 정반대의 학설입니다 즉우리가 사는이ᄯᅡᆼ이어리는 그러케 쉽게속하게된것이아니라 몃만년 몃천년이란우리의 귀어으로는 헤일수업는오랜세월사이에 되엿다는 것입니다 본래이ᄯᅡᆼ우의 천공에는 아모것도업섯고

ᄯᅳ거 운와가스와가튼것이 뭉게뭉게ᄯᅥ돌고잇섯다 합니다 그것은 심히ᄯᅳ거워도모지 우리로는 상상할수업스리만큼 한무서운 열을가지고잇섯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오랫동안 천공을ᄯᅥ돌아단니는 동안차차열을일코 얼어짐을 ᄯᅡ라마치 김이찬열을 만나면물이되는것과가티 액체로변하고 다시ᄯᅩ얼며 수축됨을ᄯᅡ라 그자연운동의결과 돌다가는 이편저편에서ᄯᅥ러저 수만흔 별들이되엿다합니다 즉우산가튼것을 빙돌리면비ㅅ방울이돌면서ᄯᅥ러저나가는것가티 덩어리가 공중에서빙빙도는 사이에 한편이홀려ᄯᅥ러저나가면서 그힘으로 그만돌게된것입니다 그리하게 어ᄯᅥ커나간것은 다시응결하여 수만흔

별이 되엿다합니다 그중의한아이우리ᄯᅡᆼ도 이ᄯᅢ에생긴것이니지금이ᄯᅡᆼ과가치단단하게 되기에 실로몃억만년천일일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도쉽새업시 태양을가운데두고돌고잇습니다 「이ᄯᅡᆼ이돌아? 언제나 이러케늘가만이잇는데」하고 혹놀라실분이 게실지도모르나다만 그중거들 주는밤과낫이잇고 일년열두달 해가밧기는것입니다 ᄯᅩ지구가 맨처음긔체로부터액체를지나 지금과가티 단단하게되엿다는 것은 이ᄯᅡᆼ속을보고 알수잇습니다 즉각지에서화산이터저나오는 거와가티 이ᄯᅡᆼ속에는천년만년기리 속에는 아직것뒤끝코잇는 불세계가 잇습니다 즉 지구표면이 점점어러드러가단단하게되엿스나아직만속ᄭᅡ지는

얼지 못한것입니다지금도여전히얼어드러 가고잇슴니다 우리가 이ᄯᅡᆼ에살고잇는것은 이ᄯᅡᆼ속이 지금과가튼 작구만 얼어드러가다가 죄다얼어붓는날에는 그만 어름의세계로화하고 말것이라합니다

고향생각
全鳳濟

우리고향 김흔산골
녀름밤이면
집들압헤 몽석깔고
엿감모혀서
무서운 「범」이야기
한참이라오
×
별들총총 어두운밤
넷말늘듯고
무서워 기여들든
작년녀름밤
생각나요 고향이
그립습니다
—단오명절저녁—

장마전에 쏫을옴깁시다
누구나할수잇는간단한방법

거운녀름한철 우리에게 엄지못할 아름다운화초는 벌서쏫이피기 지작합니다만 화분에심은것가튼것은 장마철을 압둔이ᄯᅢ가 제일좃습니다 더욱별다른준비가업습으로

아모라도 손쉽게할수잇습으로 아츰저녁 서늘한틈을타서 심심푸리로 해보십시요다만주의할것은 심으면 심는대로다살게하는 비법을잘알어야 될것입니다 그비법이란별것이아니고 우선흙을잘택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즉흙은 모래팔분흙삼분흙석근것이 제일좃습니다 ᄯᅩ흙은할수잇는대로 거름이 석긴것을 택하며 ᄯᅩ너무굵으면물이 너머잘오르내릴 념려가잇고 이와반대로 너머부드러우면썩을 념려가잇습으로알마침한것을 택하여 적은궤짝에 담습니다

담을ᄯᅢ는 밋헤는성긴모래를두고 우에흙을펴면 대단히물흡수가 좃습니다장소는 그늘로바람이적은 곳에두는 것이제일 적당합니다만 국화는특별히 보통나무쏫나무와 가티모래팔분흙삼분으로하면ᄲᅧ리가가늘어좃치안승으로 국화만은 흙과모래를반식 석는것이 좃습니다 다음나무를베일ᄯᅢ는 가위로 베이면 부서질념려가 잇슴으로잘드는칼로비임니다보통부드러운쏫이면 ᄯᅩᆨ바로비임니다만 좀단단한것은 ᄲᅧ리를잘내리게하기위하여 비인자죽으로 부터한두치쯤우에 겹실을 조곰도려두면 물이잘 오르내립니다 ᄯᅩ심을나무눈을 비일ᄯᅢ는 할수잇는대로 작년에 난눈이잇는가지를비입니다다음

심을ᄯᅢ는 풀과가튼쏫나무는 입사귀가 두서너개나은것을 옴김니다 입사귀가전혀업는것은 나무가 진혀쉬고잇는것와가틀으로 흙을 ᄯᅥᆯ어올덮힘이적습니다 다음 쏫이라도나무로된것을 심을ᄯᅢ는 그베인뫼레흙을 동글게ᄶᅡ서 모래가운데심으면 ᄲᅧ리가날ᄯᅢᄭᅡ지 그대로잇서지안코 그대로심으면 해가강하면ᄲᅧ리가 잘남니다 이러케흙을차게 ᄯᅩ일예는 잘살지못합니다물올병홀보아가면서 적당히 줍니다심은후한달을지내면ᄲᅧ리가난것은 새싹이나며 입사귀빗도입부게됨으로 흙과 모래를반반히석근 화분에 오저심습니다옴긴삼사일간은 지금과가티 그대로그늘에두엇다가ᄲᅧ리가

잘못혼후 에여벗혀버못습니다 그리고 에에거름을줍니다만 거름은 할수잇는대로조금식주며 새뭇써인것은 물통에다섯그릇쯤 담고물을 타서쓰는것이제일좃습니다

아기기르는법을 실지공개

서울소아건강련합회가 에비슨박사를 원장으로하고 태화녀자관 로선복씨를 간호원장으로한 서울소아 건강련합회는 종래의태화녀자관 유아건강진단소와 제중원양육부 동대문병원양육부가 련합하여 된것인데 세곳에서 직접지도하여 기르고잇는아히도 사백여명으로 그아히들은 매월소관 양육부에와서 건강진단을 밧는다는데 모다건강하여 오는칠일(토요일)에는 한달도ᄲᅡ지지안코 건강진단을바더온 아희들 그사백여명중에서 택하여 상을주리라는데 장소는승동례배당으로 약며ᄭᅡ지출동하여어린이들의자미스러운모힘이뇌리라하며더욱그진날인류길으는법을 실지로 보이기위하여아츰아홉시 반부터 동대문부인병원압 종로류한양행 백상회 서대문 구세군영 남대문제중원의다섯곳에서 목욕통과 기타어린아히들의 자미잇는 설비를갓추고간호가 직접을동하여 목욕식히는법등을 실시로 하리라는데누구나 만히와서 구경하기를바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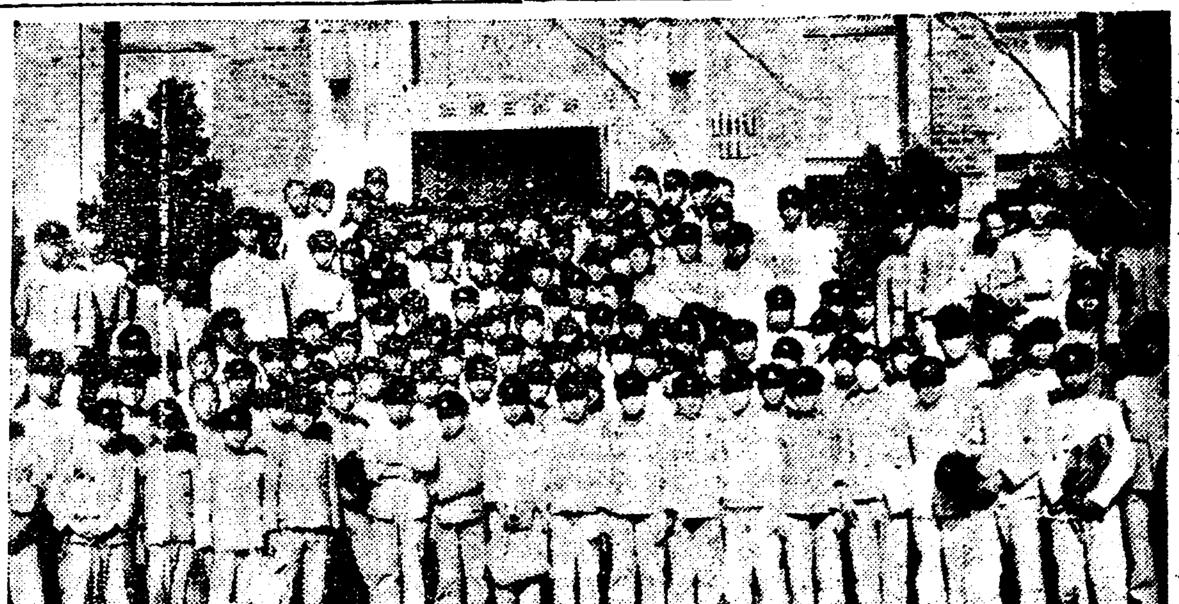
주부상식
젓먹이와변비

◇어머니의젓이부족하면변비가시작됩니다 흔한것은 소화불량으로 젓을멕이지 안키ᄯᅢ문에 자연히 젓이잘나지안케되고 병이쾌차한후에는 젓이 부족하니ᄭᅡ변비가 되기쉬웁습니다 이런경우 위선영양을 잘도다주는것이필요합니다

◇젓도 충분하고 발육상태도 좃코한데 변비증이잇는ᄯᅢ는 젓이외에 물놀이나(물을이십배 탄것)유당수(乳糖水)(유당을십배의수배의물에탄것) 가튼것을 한구람씩 여러차례 젓먹이기전에줍니다

◇사오개월된젓먹이이면능금즙낸것도 조흡니다 인공영양(人工營養)의젓먹이도 매일반이나 이ᄯᅢ 유당대신에 맥당(麥芽糖)마루쓰(엿)나 예기스(엇던약방에도 잇습니다)이나 정케수이(精製水飴)(一〇〇구람의우유에오구람쯤의비례로) 가튼것을 젓에석거서줍니다

◇더욱이자양당(滋養糖)은 변을 되게하는것인고로 변비에는자미업스니ᄭᅡ 요컨대 함부로하제를쓰시지말것『그리스린』관장도 관습되기쉬우니ᄭᅡ 음식 조섭식히는것이제일필요합니다



苦學堂本社見學 二日낫당일은 처지에서 벼와살를 앗가지안코 피와ᄯᅡᆷ을 흘려가면서 일을하는 한편 공부를열심히하는그들은 ᄯᅩ한긔계문명에 허탁을바더 큰긴긔소리 요란한 번사를세세히 견학하고갓다 (사진은조대현(曺大鉉)씨인솔의동교 일이학년백오십여명)

烏山童話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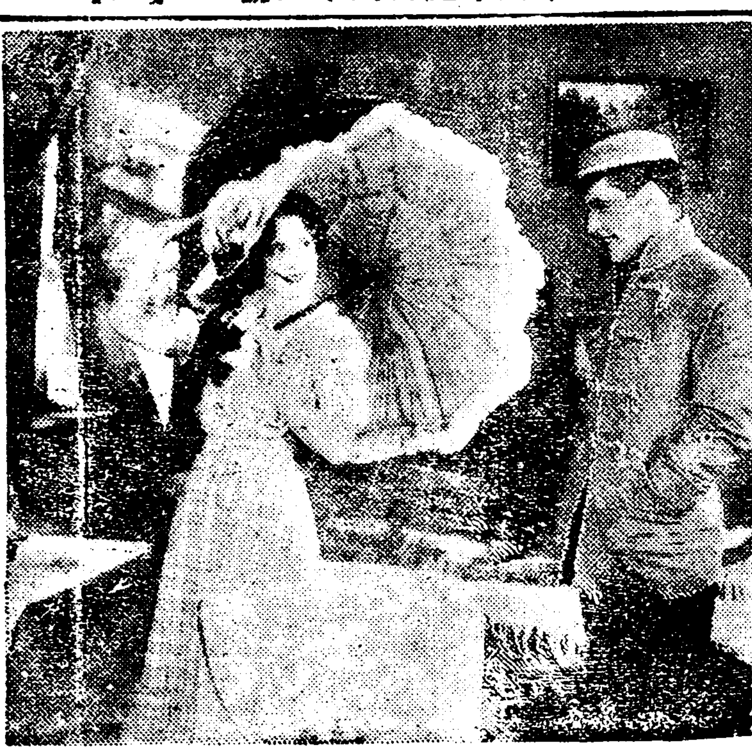
오산시사(烏山支社)주최와 중외조선오산지국과 수원 소년동맹오산지부 후원으로 오는륙월 십일오전 십시부터 오산 련합회관에서 동화대회를 개최한다는데입장은 무료라하며 연사와연제는다음과갓다고한다(오산)

『피터판』 宋影
『광주나눌장수』 安俊植

라듸오 (五)

▲午前十時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十時四五分 料理『쓰쓰미다망고』 日用品價格 ▲正午 時報 뉴-스 ▲午後〇時二〇分 講談(朝鮮語) ▲二時一五分 家庭講座 夏季衛生(二) 朴容來 ▲三時四五分 뉴-스 官廳公示事項 ▲五時三〇分 라듸오體操 ▲職業紹介事項 今夜順序發表 ▲六時 童謠 鄭淳哲 伴奏 吳貞淑 ▲六時三〇分 朝鮮語講座 金井鍾 ▲七時 뉴-스 官廳公示事項 翌日順序發表 ▲七時二五分 講演(名古屋) ▲八時 浪花節 ▲八時三〇分 바이오링獨奏(大阪) ▲九時 新内(東京) ▲九時三〇分 時報 氣象槪況 各地天氣實況 ▲九時四五分 伽倻琴並唱 李日善

新映畫 新『아-青春』(十一卷)
"Old Heidelberg"



『메트로골드윈』會社作品 『에룬스트·루비취』氏監督 라몬·노바로氏 노-마·쉐-러孃 主演

독일문호『페르스터』씨의 유명한희곡을 각색촬영한영화니 원귀가발자(發湘)한 독일 학생들의락원인『하이데르베르히』에서 변방(邊邦)의나어린왕자(王子)와 미천한려관집주인의 딸과의 애틋한청춘의『로맨쓰』다

이영화의 감독이 독일서건너간유명한『루비취』이니만큼두사람의주연을 손아귀에 쥐어넛코『카메라』와 함께 무르녹도록구사(驅使)하얏다 올롬하고애닯은 감상적(感傷的)영화, 내용으든센쓰』에 갓가워도초여름피곤한하로밤을보내기에는산들산들한사진이다『五日부터 朝鮮劇場에서上映』

映畫演藝
現露西亞의 映畫監督展望(三)
徐光霽

이『母』라는映畫는 製作直後獨逸에곳上演되엇다 그後製作한것이 一九二七年의『聖쎄데르부룩크의最後』란映畫이다 이것도亦是獨逸에서 곳上演되엿고 그後는一九二八年의『젠기스칸의末裔』이란映畫다 그것을『亞細亞의嵐』이라고하여가지고 ᄯᅩ한獨逸에서上演하엿다 그內容은蒙古에對한資本主義國家의帝國主義侵略과 蒙古人의 反抗赤色軍의參加를取扱한것이다

一九二九年에는 아·루거써푸스키의 싸나리오로부터『生活萬歲』를映畫化한다고 하엿는데完成되엿는지 아즉알수업다 그리고 크레쇼푸作品『陽氣의카나리야』及 에푸·오젯푸作品『산송장』의改題『適法의結婚』이란두映畫의主演俳優로出演하엿다 『산송장』은 얼마전에朝鮮서도 볼수가잇섯다 프도후킨의얼굴과演技는 우리들의눈에익엇슬것이다 그러나여긔에注意할것은 監督으로서의 프도후킨는 決코『산송장』의 主役者와가티 露西亞의存在는아니다 『亞細亞의嵐』의內容은 물시라도 殖民地에對한英國의資本主義, 帝國主義의××을曝露식히엇스며 푸로레타리아의最後의勝利를 蒙古人을빌려서 굿게約束하엿든것이다 프도후킨은 에잰슈타인과比較하면그手法에잇서서 演技의價値를가장重視하고잇다 프도후킨은現在露西亞國産인 音響映畫의裝置인 파-길式에依하야『無事息災』라고하는 소비엣트最初의演技的 音響映畫製作에着手하고잇다 이것이今年三四月頃에는 完成될것이라고하엿다 이리하야 音響映畫도 우리들의武器의 하나인것을 알려주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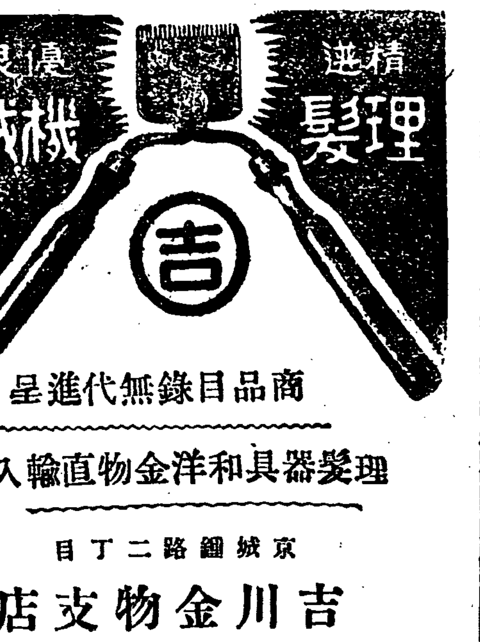
프도후킨은 이와가티 多方面의 天才이나 映畫監督으로써는 世界映畫의 最尖端을것는사람이요 目的으로써는 露西亞의 今日의生活에 熱烈한 리ᄯᅳᆷ을簡明直截하게 表現하려고苦心하고잇다

◇지싸,벨터후

에잰슈타인, 프도후킨을든뒤에는 벨터후를드시안흘수업다 그는『키노, 그라스』의盟主이다 그리고至今은 프도후킨이나에잰슈타인의映畫理論과 한가지로 外國에서도 벨터후에對한映畫理論에論議를하고잇다 그의作品『카메라를가진男子』는獨逸各地方及佛蘭西巴里에서와지 封切되엇다 그리고 벨터후는自己가製作한映畫를가지고 寫眞할에마다『키노, 그라스』運動에關한講議를하면서 獨逸各地方을巡廻하엿다한다 그ᄯᅢ문에벨터후의이름은 全獨逸에알려젓스며 世界各國에서알게되엿다『카메라를가진男子』는米國에서도 公演되엇다

安益泰氏『세로』獨奏會
六月十二日貞洞모리스、홀에서
主催 延禧專門學校音樂部

시외(市外)연희전문학교음악부(延禧專門學校音樂部)에서는오는십이일 오후팔시반에 정동『모리스홀』에서 금춘동경고등음악학교(東京高等音樂學校)를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귀국한 천재『세르로이스트』안익태군을마저『세르로』독주회를연다는데 동군은 오는륙월 중순에구미류학의길을 ᄯᅥ날터이라 하며반주로는『색스』부인의 특별 출연이잇스며『피아니스트』고봉경(高鳳京)양의 조연이잇고 입장료는일원균일인데 동군의평소에어든명성과 연찬은 족히당야의성황을예상케하리라한다



商品目錄無代進呈
理髮器具和洋金物直輸入商
京城鍾路二丁目
吉川金物支店
電光三八八番·振替京一〇九〇七番

말더듬이
重難한訥言도全治함 (要案內書無料送呈)
京城府長橋町六六番地
訥言專門矯正院

男女筆生募集
遠近勿論不拘自宅寫字事有收入確實◇年中無休◇副業에最適當 照會하시오規定書送呈함
大阪市港區[illegible]
三友社書房

現代科學을 超越한千古의 特効靈藥?
補腎強精 淫羊藿エキス錠
旺盛한陽氣와 潑溂한精力을願하는僉位여!!
萬一無効면藥價를還送함니다
淫羊藿은補腎強精의興陽秘劑로數千年의長久한歷史를 [illegible]
効能 [illegible]
藥價 五圓、十圓、二十圓
京城黃金町七丁目一三四의一
本舖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一八三九八番

朝鮮初有의뷔러분式發聲映畫
○□△超特作品
말못할事情
製作……[illegible]
主演……[illegible]
撮影……李[illegible]
團成社

當局既定方針으로 金泉高普를不許

시민대표와후원회에서는 總督府에許可交涉

지난삼십일 오전구시에 경북김천(慶北金泉) 주민대표 이동재훈(伊藤季勳)외 이인과 고등보통학교 후원회리사장심상민(沈相玟)황찬주(黃贊周) 동고보수임자고덕환(高德煥)리한긔(李漢麒)최석태(崔錫台) 제씨가총독부당국을 방문하고 동고등보통학교 설립인가 문제를교섭하엿다는데 마침총독과 학무국장은다른 일이잇서 지방에출장중임으로 맛나지 못하고 신미(神尾)학무과장을 맛나여러가지교섭을 한후총독과 국장이도라오기를기다려 그외인 사일에총독을방문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진정하엿다고 하는데 금번진정을하게 된것은 당국으로부터고등보통학교 보다도 실업학교가 김천에 잇서적당하니 실업학교로변동하라는 것으로 인가가체면되는것인데도는바에의하면경북도세로 보아김천에 고등보통학교를 세우는것보다 안동에고등보통학교를 세우는것이 적당함으로 당국의지정방침으로 김천고보는 허가할수업고 실업학교를 허가하겟다는것인바 이에대하야 관계자들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내여맛당이잇서야할고등보통학교를 세우라고하는데 인가가문제된다는것은 너무나 자미업는 말인줄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김천에서 자라나는자녀들위하야 인근칠개군의 자녀들위하야 경북제이도시인 김천에고보를 속히실현식히라고 향이의다 이에잇서 당국에말과가티실업학교운운은 설립자로부터 절대응하지아니할뿐아니라한국김천으로보아막대한손실인동시경북도로보아 전조선교육계에 막상의영향이잇는것인즉 설립자의고정적리사결정의사업에잇서 허가는하야주리라고 확신합니다한다

『目的變更은 絕對로안돼』

수십년동안대세를보아 고보설립을목적햇다고 校主의態度強硬

본항사건에 대하야 설립자인최송설당녀사(崔松雪堂女史)는강경한태도로다음과가티말한다 내가김천에고등보통학교를설립하게된것은 일조일석에 결정한것이아니고수십년동안나려오며 근금커축하여서 아모조록 조선인자질을 위하야교육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써야할돈도 쓰지안코모아서 절심을 달성하고보니 인가문제가문제되야 맘이답답하기 짝이업스며 내재산을다내여 사업하겟다는데 엇전세음인지 몰으겟스며 나도 실업학교편을생각아니한바도아니엇스며 전재산을 내여노흘때에는 비면하게 생각하고 내여노흘리업스며 또한한번 확정한일을 달리다른학교로변동한다는것은 학교설립을 아니하얏스면 아니하얏지할수업는일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지금도혹권하는사람이잇스나 나는 세계며 세를보아 고보로 확정한것입니다라고말한다

受任者高德煥氏談 김천에고보를설립하라는것은벌서근십년전부터긔성회를조직하고운동하든것인데지금최녀사의특지로 설립완성이됨에잇서 당국에서실업학교를하라고하나우리로서는 수입을바들때에 수임자중리한긔(李漢麒)씨가실업학교에대한 의사를발한즉 최녀사는절대로그러치안타는것을말하고고보조건부로 수입한것이즉 그러므로 사무를 진행할수박게업습니다 우리로서는목적을 변동할수업는것입니다한다

後援會沈相玟氏談‖금번에우리가 상경한것은 도당국에서 고보를인가할수업다는 권설을듯고 도당국과 총독부당국에 온것인데 개인특지가 전재산을

集會禁止 포스타押收 水原警察過敏

수원경찰의 빈발하는 집회금지로 일반의비난이적지안튼바 지난 삼십일일에는 오산주재소에서 수원서의명령이라하며 오산사회단체 련합회관과 중외일보 오산분국에 부쳐두엇든 월보에서발행되는 권긔(勸旗)라는 잡지의 포스타를 볼온하다는리유로압수하야 갓다는바 일반은경찰의 신경과민적 행동을비난한다고한다(오산)

●南宮德洪特志‖정읍군고부면강고리(井邑郡古阜面江古里)사는 남궁덕홍(南宮德洪)씨는 동면내극빈자 팔십이호의 호세오십일원 이십이전을 대납하엿다한다(정읍)

沙電問題解決

주민요구대로수응돼 西鮮會社의買收로

다년간 현안중에잇서서 종처럼 해결되지 못하고잇든 사리원면전긔는 필경서선 전긔회사로부터 권리를사기로하고 지난이십일에 체신국에서 사리원면당국자와 서선전긔회사사이에 계약이체결 되얏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그후소식을들은즉 서선(西電)에서 약일만원의 예산으로령천면미곡리(靈泉面嵋谷里)에 변전소를설치하고 사리원면에서는 배전소(配電所)를 만든후에는 일반시민의 요구에응하게되리라는데 그설비의완성은 금년십월 말일까지라함으로 느저도 십일월중으로는 일반요구에응케 되리라고한다(사리원)

檢束中 金昌根外七人 不遠保釋?

함북온성경찰서(咸北穩城警察署)에서는 지난일월륙일에온성에널려잇는청소맹원(靑少盟員)을 일제히 검거하고 몃칠지난뒤에다시신간회온성지회장(新幹會穩城支會長)최창국(崔昌國)을검거하야 대략취조를 마친다음에 검속자 김창근(金昌根)외열명사람을 일차이차로회령(會寧)에압송하엿는바 얼마후에서사람은 석방하고 여덟사람은 지금것 오륙개월간철창생활을하여오는중에리시왕(李始旺)씨외당입변호로 불원에 보석될희망이잇다고한다(회령)

漆原咸安間 道路工事喝望

일반은당국을비난해

경남함안군내(慶南咸安郡內)에 잇는함안칠원간삼등도로는함안면이군소재지(郡所在地)인관게로 칠원서칠북(漆原西漆北) 세면의 주민들에동행하는 길인데 매일정기 자동차가 왕복이매 임시로 왕내하는배도 매월수차식이나되어 교통이 매우번잡한 곳인데도불고하고작년홍수에칠서면 회산(漆西面會山)압길이 상하얏는데 지금까지 수리하지 안햇슴으로 현재는자동차가 게우 지낼뿐아니라 매우위험하다는데일반주민과교통업자들은 당국의 너무나 무정의함을비난하는 동시에될수잇는대로 속히 수리하기를갈망한다고한다(칠원)

水原出版勞組 창립대회

조선 로동총동맹 수원로동조합(朝鮮勞總水原勞組)은원래합동체로잇든바 방금 모든정세에빗최여 산업별(産業別)조직이가장 필요함을 인식하고 위선동조합 인쇄직공반(印工班)의집행위원회를 지난달이십칠일에 열고조합의 동의를엇어서 수원출판로동조합(水原出版勞働組合)으로 변제하얏다는바 오는 삼오일에 제일회림시대회(第一臨時大會)를연다하며 토의사항과 피선된 임원은다음과갓다고한다(수원)

◇任員 執行委員長沐凡辰 執行委員 金永和 車在化 李鋪和外五人 檢查委員金景涍外二人

◇決議
二、臨時大會召集의件
一、大會準備委員選出의件
一、財政方針의件
一、將來方針의件

自働車顚覆한 運轉手遂起訴

지난 사월이십사일에 불시폭우가나리어 삽교(揷橋)당진간 동행하는 자동차가당진군 면천면사긔소리(沔川面沙器所里)에서 길에물이넘치어 자동차가 전복되며 승객이부상하야 대전철도(大田鐵道)관사십택(太田鐵道官舍)이현장에서 즉사하엿다함은 당시보도하엿거니와 그자동차운전수(運轉手)손익성(孫益星)은 그로인하야 이래불구속으로 취조하든바 드듸어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公州地方法院瑞山支廳)에 긔소가되여지난삼십일에 동지청판검사가 권긔손익성(孫益星)을다리고전복되엿든 장소에출장하여 검증까지하엿다한다(당진)

尙州春繭共販場 數千群衆殺到擾亂

류리창을부수고돌을던저 繭代支拂을안함으로

경북상주(慶北尙州)에서는지난이일에장견공판이 개시 되엇는대원래 상주양잠은조선제일위를 점령하야 매년춘잠만 일만석을 돌파하는 생산지임으로 해마다 이때가되면 이잠견공동판매(繭共同販賣)가개시되면수만명식이십일동안이나 집합이 되어 대호잡을 일우워 신설시가지가 된다그리고잠견매매방법에잇서서는 |공매(競賣)로하얏다가 수년전부터는 도당국으로 부터 대구야마주(大邱山十) 제사공장(製絲工場)에다가특매(特賣)로 넘기어서 일반잠견 생산업자들이 여론을환긔하야 도당국(道當局)에 멧번이나 교섭까지 하야왓스나 효과를 보지못하고 더욱이 금년에는 춘잠장려이극량오하얏는데도 불구하고 갑은 특등(特等)사원오십오전으로 일등(一等)사원십팔전 이등(二等)삼원칠십팔전 삼등(三等)삼원사십전 사등(四等)삼원일전으로결정하얏는데 일반 잠견생산자는 횡빈(橫濱)시세와 만흔차가 잇서 만흔불평이 잇슬뿐아니라 잠견매매를 취급(取扱)하는 계원(係員)을 일본인 청년단을고임하야씀으로 촌가의 량민들에게너무나 란폭한 행동이만코불친절하다는데다가 잠견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두서가업서 아침여덜시에 입찰한 곳치대금을 그익일 오후까지 기다려도주지 아니함으로 칠팔십리에서 새벽아침먹고온 수천의 군중들은이들문개하야 돌을집어던저 공동판매장의 류리창을 파괴하면서 돈내라고 아구성을처 일시는대수라장을 일우웟는데 군당국에서는 이태도들안연이 보고도하등의 간섭도업고 지방인민을위하야편리한방편을도모하야주지 아니함으로일반은원성이만흐며 케이원은 창조리고치갑이 떠러저 특등삼원륙십전흔단고하는데 듯는바에의하면 지정한갑가가 삼원오십전이아니라 갑을 결정못하얏스니 이다음에 정말 갑을결정하야 남오지돈은 각기 거주하는 면소로 부쳐준다고하야 잠견판수만명의 군중은원청이높흐며 분개함을 참지못하야 수백수천명식 모혀서서의론이 분분하다한다

西野鑛業主任談‖금번공관에대하야 여러가지로 질문하려온 긔자에대하야 다음과가티말한다

해마다『야마주』가특매하는데 잇서서 군당국으로 돈이와서는-군에서 고치를 사서주엇는데 금년에는 군에서그것을 취급하지안코 직접야마주에서 청년단원을 고입하야판매일을 커리하는중인데 원래경험이업는까닭에 그와가티 일이두서가업서 생산자에게 막대한손해와 불평을 깃처준것은 책임자로서 미안한말슴은 엇더라고 말할수업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한주의와 간단한방법으로 돈을곳지급하도록하겟습니다 하여간 일반에게무어라고말슴을드릴는지모르겟습니다한다(상주)

庶母土地를 詐賣타가被逮

검사국넘어가

경성부봉익동(京城府鳳翼洞)십륙번지 거주하는한 모의아들한영긔(韓英基)(三二)는그의동류인 리규완(李圭完)정명선(鄭明先) 오련흥(吳連興)김봉운(金鳳雲) 등과 공모하고 자긔의서모(庶母)이림덕경(德卿)의 소유토지(所有土地)로양주군이담면동두천리(楊州郡伊淡面東豆川里)를 비롯하야 동면지행리(紙杏里)에잇는 사십여필 현가륙천여원가량되는 전답을 팔아먹기위하야 권긔림씨의 인장을위조하야가지고 의정부(議政府) 모대서소에 위임하야 등긔(登記)수속중 당지경찰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여 엄중한취조를 맛친후도주하야 버린한영긔와 리규완두사람을 제한외에 권부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지난삼십일에 넘어갓다고한다(양주)

◇…烏山社會體育聯合會館落成式

墜道工事中崩壞로 三人工夫生埋

파고보니생명엔관게업서 平原線鐵道工事場에서

성천군삼덕면쌍림리(成川郡三德面雙林里) 제구공구에서공사중이든 추도서구의 입구가지난 이일오전 네시삼십분에 돌연히 문허젓는데 배마츰 단오임으로 공사를중지하엿다가 이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인부삼인으로 하여금흙을 퍼내는등 작업시작의준비를 하고잇든중 그와가치 몰연히 문허젓승으로 생사를몰라열시 대소동을 일으켯다하며 문허진것을 다시치는 것도상당한시일이걸리게 됨으로 하는수업시그연홈 수십명의 인부들때여동원일서일서반에겨우돌로보니다행히 권긔삼명잇는곳은 문어저저 아니하엿슴으로 생명에는아모관계가업섯다 한다

溫泉工事非難

재민구제공사라는것이 勞賃을支拂안해

동래읍주민(東萊邑住民)구제를 위하야 경남도토목과에서 정리한다는 동래천공사가 의외에 온천정리공사(溫泉整理工事)로 변함에잇서서 동래면민들은동공사가 삼천여호의 동래읍민축의피해에관한중대문제를무시하는것일뿐 아니라 동공사로인하야 도로여름내의 주민은 일층그위험을 밧게된다고 드듸어동래천정리 긔성회까지 조직한바 문제의온천공사는 이제또다시 새로운문제를 야긔하고 잇스니그는 로임탈취 이란근자에 들은 사실로 그상세한내용을 듯건대최초동공사를 부산(釜

(丸興組)에서 정부하고동조의 삼우(森友)라는일인이 당업한것이라는데 삼우란자는 동공사를시작하야 다수한인부(人夫)들사용한후그임금 지불을 전표(傳票)로발행하고 현금과교환케 하엿스나 그후관사이되도록 그교환에 응치안함으로 여러번독촉을 하엿스나 오날래일로 밀우어오다가 최후에 는조장환강(組長丸岡)과 상의하야 속히지불하겟다 하고 부산으로내려가 버린후목본(木本)이란사람이 박귀어왓슴으로 수백인부들은 그들대하야그지불을요구한즉 그는아모 관게가업다함으로 그중리룡만(李龍萬)씨는 부득이수백명의 인부전표(人夫票)를수합하야 가지고삼우를 방문하고 그지불을요구한즉 삼우(森友)는 새삼스러히 늣게 가저왓다는공연한 여설로서 그지불에대하야 하등의성의를 보이지안함뿐아니라 세포는한 완력으로 대항코저하야 리(李)는 드듸어도(道)와면 당국(面當局)에까지 그수취방법에대한 진정을 하엿스나 하등의효과가업스며 삼우(森友)는 이제 그전표를 이철인으로리 가라는 괴괴한소리를 함으로리는 방금고소를 제긔하라한다는바동래온천(東萊溫泉)의김백수(金百洙)란상인도 인부의 전표로룰건은 교환한것이 삼백삼십여원이나 되는것을무독이 지난달이십구일에 이백삼십원으로 할인하야 교환하엿다하며 그외에도그러한구실로서각상점파각 인부들에게지불치못한것이칠백여원이나되는모양이라는바동래로동조합(東萊勞働組合)에서도 이문제에대하야 적극적으로 항쟁을 개시하리라하며 동공사가 경남도토목과(慶南道土木課)의 공사인것만큼 그래도여하가 극히주목을끈다한다(동래)

住民被害莫甚 『모히』患者登錄後

각처에절도사건속발로

전남병영은(全南兵營) 『모루히네』중독자만키로유명한 지방인만치일반은 념려를 마지안튼바 지난삼월분에『모히』중독자삼십오명에게 공공연하게도 등록허가증(登錄許可)을 주엇다는바 순사를보면취구멍을못찻든모히군들이 등록허가의 간판을부치고대로상(大路上)을활보하는동시에 그들의 소위인지각리에절도가빈발하여 주민들은 밤이면 안심할수가업다하며 그외에 등록증을못어든자도부지기수라는바외계에전염될가하야일반은념려를마지안는다고한다(병영)

兵營에모히密賣

전남병영 박동리김주익(全南兵營朴東里金柱翊)이라는사람은 『모루히네』등록허가증(登錄許可證)잇는중독자로서모히를 밀매하다가 발각되어 어듸로인지종적을 감추어 버렷승으로소관병영 주재소에서는 범인체포에노력중이라한다(병영)

安邊旱害

요지간안변군내(安邊郡內)각지의 농형소식을듯건대근일한발이 태심하야 차츰차츰시작되는이앙(移秧)에는관수(灌水)가극난이고 파종된두태(豆太)에는싹이도지못하야반분이상은 다시파종치안흐면 안되게되고 모맥에도 손해가막대하다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장래를 우려하기 마지아니하는바 금후 이모양으로 밀주간만 계속한다면대흉을면치못하리라더라

新靑西支總會

함남신흥군(新興郡)서고천면 에잇는 신흥청년동맹서고천지부(新靑西古川支部)에서는 지난륙일입일정오에 동면대동서당(大同書堂)내에서지부설치 이주년긔념식을개최한바성황리에종료되엇고 이어서오후한시부터 동지부정긔총회를전긔장소에서개최한바념두부터방청금지로장내가 긴장한중에서좌긔사항을토의하고무사히폐회하엿다한다(신흥)

◇議案‖運動方針樹立의件

一、會館의件(現在大洞書堂은元來會館으로建築한것이나 周圍關係의不利로今日까지使用치못하는바 지금부터라도 會館으로使用코저郡當局及警察當局에交涉키로‖交涉委員李達錫李會鳳兩君을選定함) 一、教養의件 一、負擔金의件 一、會員整理의件 一、組織의件 一、風氣紊亂의件(某面當局을糾彈) 一、少年運動의件 一、城川江河川整理의件 一、其他

釜山、金海間 道路促成運動

김해주민들이긔성회조직

경남김해군(慶南金海郡)은락동강최하류에처하야 교통이 엇더케불편하든지 녀름에는 락동강(洛東江)의홍수 겨울에는 결빙(結氷)으로교통이 전연 두절하고마는까닭으로 종래로 여간고통을당하지 아니하얏다는데 금번에마침 마산(馬山)으로 일등도로가 김해군경(金海郡境)을 둘어와 삼랑(三浪)으로가게 되는데 삼랑락동강에는 굉장한철교를가설하고 련락하게된을 안동군주민들은 이도로선을 김해읍으로둘어와 선암대거(仙岩大渚)를동파하야 락동강에는철교를 가설하야 동래사상(東萊沙上)방면으로 련락식히면관게각군의 발전이잘 되리라는의미로 지난일일에는 김해면사무소 루상에서군내유력자 수십명이 모혀 그실현에대하야 주책적협의한결과 부산김해간 일등도로긔성회(釜山金海間一等道路期成會)를성립하고 다음과가치 각지에도 긔성회를조직후총련합긔성회(總聯合期成會)를조직하고 일대운동을 일으키고져 교섭위원으로 허발(許撥)배진환(裵鎭煥)고뢰구일(高瀨久逸)제씨를 선거하얏다한다(김해)

▲委員長許撥▲會計裵鎭煥
▲委員具滋會外九人

六千餘罹民 救濟方途杳然

뜻하지아니한맥흉으로

경북례천군(慶北醴泉郡)에서수삼년을두고 한재를 거듭당하야 금춘에 일으러서는 삼만수천여명의재민이 나타나서 말못될현상이라함은 이미두차보도 하엿거니와 군당국에서 그수효가원체만흠으로 각면으로하야금 긔근민공조회(飢饉民共助會)를각각조직케하고 그중에도 말못될참정에빠진자 즉남의구조를밧지안코는 부동산(不動産)등속전부가업는자우는 로동도할수업는자 순전한재민 륙천백여명만에서 혹은일이회식 혹은삼사회식 만주속을 배급해주엇섯든바 지금은그구제도 맛치게되엇는데 또다시보리(麥)가 지리하든장마로하야금 여지업는 흉년이되고 말엇승으로 그들의생도 희망을 보리에두든것이 보리가 그모양 되엇승으로 그래도생의 가암밤하다 고한다(례천)

金泉鞦韆大會

지난음칠일에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는 녀자추천은근우회김천지회(槿友會金泉支會)에서남자추천은 소년회(少年會)에서주최하야약수동(藥水洞)삼림속에서천수백여명의 경긔지원자가 서로닷투어가며 자긔의 기술을내어엇다는데 오전열두시부터 시작하야 오후칠시에 대성황으로 폐회하얏다는데 남녀수상자의 씨명과 척도(尺度)는다음과갓다한다 (김천)

◇男子部 一等崔性淑(三四)旭町高二十二尺 二等吳寶京(三二)本町高二十一尺九寸 三等金益煥(三四)善山高二十一尺二寸 四等劉周鍋(三五)知禮高二十一尺 五等黃泰淵(一九)金陵面高二十一尺

◇女子部 一等林小順(二二)南山町高十三尺 二等李順伊(一九)旭町高十二尺三寸 三等文明南(一五)旭町高十一尺九寸 四等金魂培(三一)南山町高十尺半 五等李貞任(二一)南山町高九尺半

賃金引下로 撚糸工動搖

녀직공팔십명에게 二割以上을減下해

부산복도연사제망소(釜山福島撚糸製網所)에서는 지난이일부터남녀직공(男女職工)팔십여명에게 상업부진이니 긴축이니하는리유미테서 최저 임금이할을 인하(二割引下)하엿승으로남녀직공들사이에는 물론이오 남직공외지의 사이에도 공긔가매우험악하여 동맹파업(同盟罷業)의긔세가보인다는바 일반은 금후의 진전을매우 주목한다고한다 (부산)

端農波支創立

단천농민동맹(端川農民同盟)에서는 파도제일지부설치대회(波道第一支部設置大會)를지난달 이십구일오후두시부터 영산의숙 강당(靈山義塾講堂)에서삼십여명의맹원출석에렴영원(廉永沅)군의사회로 개회하엿다한다 (단천)

◇任員 執行委員 廉永沅 同候補 李鍾球 各部委員 金基澈 廉基珍 金麟星外九人 檢查委員長 黃宗吉

◇討議案 一、會館問題의件 一、會費收集의件 一、盟員獲得의件 一、班設置의件 一、農民啓蒙方針樹立의件 一、無產兒童教養의件 一、小作問題及農民生活調查의件 一、租及大豆豫買不正反對의件 一、大成院의件(以下略)

地方短信

盈德

◇盈德幼稚生遠足‖本邑私立盈德幼稚園에서는去二十七日園長及保姆引率下에男女生徒五十餘名은風致林까지遠足한바滋味잇는遊戲와運動이잇섯다고

◇揚塗扶斯豫防注射‖盈德警察署에서는南石洞二區에發生한揚塗扶斯患者를嚴重注意식히는同時에邑內各洞에豫防注射를施하엿다고

◇叺不正貿取締‖본군영해면성내동몃사람들은년전에가마니(叺)누려소를설치하고각촌민의제조한가마니를누역하되보통시가에도렴가로매입하야고객로방매향으로당시군청에서는부정매매하는것을취체하야해산식혓다고

◇旱害稻種子寄付‖罹災窮民救濟로본도금본군에서군내한해농민을위하야도종자(稻種子)를무상혹무상으로배부하라한것을 창수면어나동리구장들은자기사복에채우다가발각되얏다고

原州

◇原州勞働會創立四週年紀念式餘興‖江原道原州勞働會에서는지난一日(陰五月五日端午)午前八時半부터同會館內에서委員長李東秀君司會로創立四週年紀念式을開催하고順序에依하야諸般事項을決議하고同十一時頃에無事閉會하고餘興場만南山으로옴기라다가마참雨天으로하여금餘興에들가지못하고同會館에서歌舞로餘興을하다가마참午後三時頃에雨晴함을틈타서南山으로옴기여數年만에餘興大會를하얏다고

◇原州勞働會大會‖江原道原州勞働會에서는지난三十一日午後八時부터同會館에서議長李東秀君司會로第三會定期大會를開催하엿다고

◇電燈架設은太田電氣會社支店으로決定‖江原道原州에서는電燈架設問題로지난二十六日午後二時에當地有志六十餘人이公會堂에모히어協議하고道評議員植村氏를太田電氣會社에交涉委員으로派遣하얏다함은既報하엿거니와植村氏가二十七日에太田電氣會社에出張하야社長古谷氏를會見하고其外重役諸氏를一一히會見하고原州電燈架設할것을具體的으로對議한結果會社로부터原州에서五百株에株金二萬五千圓을負擔하거나그러치안흐면太田電氣會社支店으로하거나두가지中에原州人士에任意에맷긴다는明確한對答을듯고植村氏는三十日에도라와三十一日에다시原州公會堂에서有志諸氏를會合하고交涉한顚末을報告하고事業進行에對議한結果支店으로設置하기로決定하고곳太田電氣會社에電報를發하고閉會하얏다고

水原

◇發安靑年總會禁止‖水原郡鄕南面發安靑年會에서는五月十四日에臨時總會를열랴고하엿든바警察이禁止함으로不得已延期하엿다고

◇少盟楊甘支部大會禁止‖水原少年同盟楊甘支部에서는臨時大會를지난二十五日에同支部會館인楊甘面旌門里에서開催하랴다가警察의禁止를當하얏다는바이번이再次이니만큼三次로또禁止한다면書面大會를열豫定이라고

◇新興學堂放學‖楊甘面旌門里에잇는新興學堂에서는차차農繁期가갓가워옴으로지난三十一日에放學을하엿다고

槐山

◇道安公普學級復舊‖긔보한바와가티괴산군도안공립보통학교(槐山道安公普校)에서는 학급축소(學級縮小)문제로 학부형회(學父兄會)를 수차여러교섭위원을 선정하야 군당국으로 교섭을한다 여러가지대책강구(對策講究)에분주하든바지난이십구일부터 조동이(趙東伊)씨라는교원이와서 일이학년을 당입케된바 아동(兒童)은물론학부형들은 깁버한다고

知禮

◇知禮面納稅不能‖慶北金泉郡知禮面에는昨年의旱災餘因中에戶稅가增加되어戶稅徵取하기에말성이만다고

◇大德面窮民販賣所新築‖金泉郡大德面에는窮民販賣所가업서서一般窮民家諸氏는窮民販賣所를만들기에困難이만튼中本面面長李龜淑氏가多年間恒心해오든바熱烈한努力을一層더하야管內에窮民家諸氏의義捐을어더本面館基里市場터에다가방금販賣所를建築한다는데今年度春窮期부터販賣를施行한다고

◇戶稅를代納‖경북연일군창주면공당리에 거주하는리규연(李奎衍)리종근(李鍾斤)김영선(金永先) 삼씨는 자긔의 재산도그리넉넉지못한 터이나 모다청질이인자함으로 년전부터 중승자선의미행이 잇섯는데 금년에는특히공권의 재변을 당하여동리주민들이 모다초근 목피로서양식을삼아 생명을근근히 유지하여그날그날 지내오는 차마눈으로보지못할 상태에잇는중설상가상으로 본년도 제일긔호별세납입긔일이 사정업시 박두하여이골머리아픈 납세긔일을 당한궁민들의 고민한상태를보다가못하야전긔삼씨가의론한결과 동리호별세 전부를 대납하엿다한다(구룡포)

地方人事

▲李淵根朴亮鎬(新幹松汀支會執行委員) 全南西倉面松汀面飢饉民狀況調查次六月六日出發

▲梁永日洪素俊(新幹會松汀支會執行委員) 全南平洞面東谷面飢饉民狀況調查次六月八日出發

關北庭球大會

一、時日 六月八日(雨天順延)
一、場所 端川公園코-트
一、申込期日 六月七日까지
一、申請場所 崔東斌商店
一、申請金 每團(三組)一圓
一、用球 마두비시-
一、賞品 優勝旗及付賞品
主催 端川庭球協會
後援 中外、朝鮮支局

第三回 高陽蹴球大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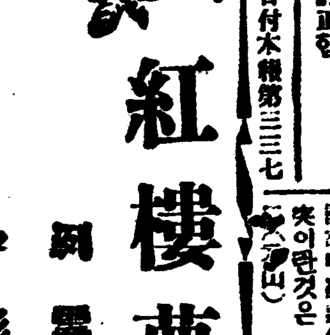
時日 六月十四(土)十五(日)
場所 殖銀運動場
主催 崇仁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東部支局

金剛山探勝團募集延期

路程 長安寺、表訓寺、正陽寺、八潭、摩訶衍、毘盧峰
主催 往十里、荷主、組合
後援 朝鮮日報東部支局
申請場所 往十里泰昌精米所朝鮮日報東部支局
參加金 十一圓(往復車貸宿料)
申請期限 六月七日午前까지
歸着 六月九日午後十時二十分
出發 六月七日午後十一時三十分(集合場所往十里驛)

◇訂正‖去五月二十七日七面에平社員의暴行이라는記事中李成龍某가나와서暴行하얏다한은李成龍이아니라李鐵鳳이기로茲에訂正함

●訂正‖去一日付本報第三三七九號四面에入(?)二面에記載된記事中決議件에會員多數餘(?)이란것은記事中決議件이란것은誤謬이기茲에訂正(釜山)



紅樓夢 (六七)

洌雲譯 夕影畫

寧府排家宴 一

가정의생일날이되매 이날에가진은 먼저가장먹기조흔불건과 것에담아서 가용이더러 집안하인을다리고 갓다가 들이라고하며 가용이에게

『너는 주의하야 할아버님께서 깃버하시나 깃버아니하시나 잘살펴서 네가례를행하고나서 애비는 할아버님말슴대로 감히뵈러오지못하고 집안에서 온가족을다리고 여긔를향하야 례를행하엿습니다고 엿주어라』

이러케당부하야 가용은하인을 다리고갓다

여긔에는 천천사람이오기시작하야 먼저는 가련과 가장이 가와서 각처의좌석을보고 『무슨여흥이 잇느냐고』를오니하인의대답이

『우리대감께서 처음에는 노대감을모서오시라고하셧기때문에 무슨여흥갓흔것은 감히준비도아니하셧다가 그뒤게 노대감께서 아니오신다는말슴을 들으시고 소인들에게분부하셔서 어린광대한패와공인한패를 불러다가지금모두 후원뷔대우에서 예비를하고잇습니다』

한다 그다음에 형부인과 왕부인과 봉저와 보옥이도 모두왓다 가진이와 우씨가맛아들어가는데 우씨의 어머니는 벌서와서 안자잇섯다 여럿이 서로인사하고 피차자리를권하야 좌정한후에 가진과우씨가 친히 차를권하고 웃으면서

『할머니는 우리집에서 항렬이케일놉으시고 우리아버지는조카님이되시니까 이날에 원체감히 노인네를옵시사고 청할수는업지마는다만이때가 일긔도시원하고또국화가후원에가득이피엇기로할머님께건너오서서 소창이나하시고여러손자들이 떠들석하게노는것이나 보시라는뜻으로 엿주엇드니 할머님께서 낭을아니보아주실줄은 몰랏습니다』

말하니 왕부인이

『할머님께서 어제까지도오신다고 말슴을하셧는데 엇저녁에 보옥이가 복숭아먹는것을보시고 잡수시고십허서 반개나넘어잡수시드니새벽에두번이나 일어나시고오늘아츰에는 좀몸이곤하시다고하시면서 나더러네게오늘가지는못하겟스니 먹기조흔것이나 몃가지보내되매우무른것이래야 한다고 이르러고밧습하시드라』

하니 가진이가

『내말이 할머님께서는 떼를석하는것을 조하하시는때요는 아니오시는것은 반듯이무슨연고가계신것이라고햇드니 그러켓서요』

왕부인은 다시

『그적게 네누의에게 말슴틀으니까 용이댁이 몸이저부하다드니 좀어떠냐?』

물오니 우씨가

『그애병든것은 하도이상해요 지난달 가위날에 할머님과 아주머님을 모시고반밤이나 놀고집으로돌아와서는 잘지내드니 스무날후부터는 날마다차차몸이곤해가며 음식먹기를 실혀한지가 벌서보름이넘엇답니다 그리고월경을 두달이나걸햇서요』

형부인이잇다가

『그러면 태긔갸아니냐』

이러케말하는데 밧게서 하인이 엿줍기를

『큰노야(가사)와둘재노야(가정)되 일가대서방님네들이모두오셔서 사랑에게십니다』

하니 가진이는 빨리나가고여긔서는 우씨가남을부람

『압서본의원들중에는 태긔라고 말하는이도 잇섯습니다 그리드니 풍자영이가 자긔어려서 글을배우든 천생여 의술이매우고명하다고천거해서 보엿드니 그의말은 태긔는아니고 큰중세라고하면서 방문을내여서 어제한첩을먹엇드니 오늘은 머리가 내둘리는것은 좀낫는듯하다고하나별로 큰효험은아즉업습니다』

봉저가잇다가

『제가몸이오죽괴로워야 오늘가튼 이런날에 억지로라도 일어나려들지를 안켓서요』

말하니 우씨가

『자네는 초사흔날여긔서 그애를보앗지? 그때도 그애가 억지로한동안이나몸을간우고 일어낫섯도 자네속실간사이가조흔탓으로 그렌게자 그리고 자네간뒤에도 참아섭섭해서햇다네』

봉저는 이말을듣고 눈가가 한동안 붉다가

『한울에는 알수업는풍운이잇고사람에게는 조석의화복이 잇다고 이런엇가운 년긔에 만일이병으로말미암아 어떠케된다면 사람이 무슨자미로 세상에산단말이오』

이러케말하엿다

百餘名中國勞働者 短刀들고深夜에襲擊

단오날에술마시고싸홈이시작 南鐵工事場에서

전남보성군 득양면삼정리(全南寶城郡得糧面三亭里) 조선인로동자유종실(劉鍾實)의숙사에임일오후 열한시경에 중국인로동자(中國勞働者)수명이손에단도(短刀)삽가래등을가지고몰여와 권긔숙사에 나타나 김상선(金尙善)(二四)장긔동(張基東)(三五)김재순(金在淳)(四一)문재명(文在明)(三二)유명거(劉明擧)(三一)의다섯사람을 구타하고 단도로 엄려중대한 부상을 내엇스며 수일전에 이곳에온 로동자한명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남철청부업가등조(南鐵請負業加藤組)제일호제오반구(第一號第五番區)에서발생하얏다는데상긔 오명은 입원하야 치료중이며그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금월일일은단오인만큼중국인로동자측에서나 조선인 로동자측에서나 서로합하지는 안헛스나전부휴업하고 술을먹고 그날오후세시경에 중국인 로동자루관청(魯貫淸)이와조선인류도식(劉道植)이와두사람이싸홈을하얏다는바 중국인두부(頭部)에상처를 내엇섯다 이에중국인은병원에 입원하야 치료중이라는 중국인측태도에매우분개하야잇슴을보고가등조(加藤組)로불려가오는밤에 중국인로동자 측에서엇더한 행동을취 할는지도몰으니 주의하야달나 하얏스나하등의간섭도 업섯다한다 그러나조선인측에서는 사태가불온하여감을 알고즉시 득량면경찰관주재소에 오후여덜시쯤 하야보고하얏는데 이에경관이 출동하야중국인측으로 부터 화해하자는의미로 사람을보내여 안심하야달나함으로 모혓든 군중은 흐터지고 경관도그대로 도라갓는데오후열한시쯤 하야 백여명의중국인로동자가 손에 몰려와서권긔유종실숙사에뛰여들어와이와가튼 폭행을 하얏다 한다이에촌민들은 황겁하야 압산으로피신하얏으며 중국인들은 집집을뒤지엇다는데 이에촌민 들은오날밤에 또이러한 행동을하지안나하야 공포에싸이어 잇다하며 행방불명된사람은 죽엇는지 살엇는지의운에싸이여 잇다하며 현재중국인세사람은 엄중취조중 이라한다(보성)

鄭、金兩共黨員 四年을求刑

언도는오는십일에 平壤法院에서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의파견(派遣)으로『모쓰크바』공산대학(共産大學)을졸업한후『두나할스키』의지령(指令)을바더가지고 비밀히 입국하엿다가 피착된 정석행(鄭碩行)(二一)과 김도엽(金度燁)(三二) 량인에 대한치안유지법 위반데 일회공판은 지난 삼일오전열한 시부터 평양지방 법원데일호법 정에서본다(本多)재판장주심과 고목(高木)진(陳)량 판사배석(陪席)으로본도(本島)검사의립 회하에 개정하엿는바 이공판은 평양에서 처음되는 공판이니만치 다수의 방청인과여러사람의 특별방청인이잇섯고최정묵(崔鼎默)변호사의렬석이잇슨후재 판장은 피고정석행으로 부터 주소(住所)성명(姓名) 년령(年齡)직업(職業)전과유무(前科有無)등을무른후재판장과피고사이에는다음과가튼문답이잇섯다

『문』대정칠년에보통학교를졸업하고서가(書家)가되기위하야 글시공부를 하엿다니사실인가?

『답』그럿소

『문』그후중동(中東)학교에단니다가 미국에가서 공학(工學)을공부하려고 하엿다지?

『답』그럿소

『문』그후에 미국에는 가지못하게되어 동경법정대학(法政大學)에 입학하엿다지?

『답』 그랫소

『문』 그후에는 무엇을공부 하엿는가?

『답』 대정십이년 하긔휴가에 동경진재로인하야 경성에서 서양화(西洋畵)를공부하엿소

『문』 그후토월회(土月會)에서 연극연습을 하엿다지

『답』 사실이요

『문』 그런데 그후에 경성에서 정단야(鄭丹冶)박헌영(朴憲永)등과서로교제하면서 그네들의 사상에 공명(共鳴)하여 ××사상과 사유재산(私有財産)을부인하는 생각을가젓섯고 대정십사년삼월에는 고려공산청년회의 파견생으로로서아에 갓든사실이 잇는가

『답』 잇소

『문』『로서아』에서공산대학에 입학하엿는가?

『답』 그럿소

『문』 장한준(張漢俊) 김형관(金衡寬)과가티갓는가?

『답』 경성서혼자떠낫지마는상해로가는 배가운데서 두사람을맛낫소

『문』『로시아』에는무엇하려갓든가?

『답』 학술을연구(硏究)하려갓소

『문』 대정십사년칠월경에고려공산청년회에입회하엿다지?

『답』『로시아』로가기전날에입회하엿지마는 간후에는 그곳 청년회에 입회하고저 하엿스나 년령초과로 부득이입회하지못하얏소

『문』 소화이년봄에신의주에서 공산당원들이 검거를 당할때에 그당시 재학생 전부와공모하고 독일두봉(獨逸斗俸)을모아보낸 일이잇는가?

『답』 즉접정치운동을위하야보낸것이아니고인도상도덕상으로보낸것이요

『문』『두나할스키』의지령(指令)을바더가지고왓다는데사실인가

『답』『두나할스키』가로국공산당의간부인지는모르나 피고는 지령을발할만한권리가업고 다만 피고가 조선으로 도라올때에 그를맛나 조선의운동에대한 이야기를 무른즉 조선에서는 로동자농민을 중심으로 완전한 조직을만드러가지고 서서히 운동을진전하는 것이 조켓다는 의견을드른일이잇소

『문』 공산주의란무엇인가? 또는 순공산사회에는 엇더한행복이잇는가?

『답』 여긔에서는 간단히 대답할수업다고한후 본도(本島)검사로부터징역사개년의 구형이잇섯고 최정묵변호사의변론이 이번사건에는 물적증거가업다는것을 론하야 피고김도엽은무죄 정석행은 집행유예의형이 적당하다고 변론하얏는데 판결언도는 오는십일이며 동오후두시경에폐정하엿다고한다(평양)

持久戰繼續하고 作業部를設置

이튼날오후에

동파업단에서는 지난이일 오후칠시 파업단본부에서 역원회를 열고 작업부(作業部)를 설치하기로하고 역원십사명을 선거하야자금을 모집하는한편으로 주문주를 방문하고교섭하기로 하얏다는데 파업단측에서는 어대까지든지 원만한해결이 되기전에는 지구전을계속 하리라고한다(부산)

世上을悲觀 失職과家庭不和 利刀割腹

시내인사동십륙번지(仁寺洞十六番地)무직김리은영(無職金李殷榮)(三八)은 날밤오후 십일시경 박게나갓다가 술이취하야 집에 돌아온후 처되는 정진희(鄭鎭姬)와 부부싸홈이 일어나 별안간 자포자기의 생각이나서 날카로운칼로 자긔의왼편배를사뭇찔러출혈이 심하엿슴으로 그처되는사람은 놀라부근 병원에 데려다가곳 응급수당을하야생명에는관계가업스나 전치이삼주일을요하는 중상이라하며 그자살긔도의 원인은 실직으로생활난에싸히어잇든중 그안해가 항상빈궁한 살림사리를 할수업다고함으로자연부부간에불화하여 나지든중 그날밤도 리연설(離緣說)가지나섯슴으로 비관·남어지 그리된것이라더라

牧島造船工 盟罷依然繼續

일본서직공을불러와서 공긔가일층더험악해저 最後까지抗爭할터

부산목도 조선직공(釜山牧島造船職工)백여명의동맹파업(同盟罷業)은날을 거듭할사록해결의서광(曙光)은 조금도보히지안코 점차확대만될분임으로 고주측(雇主側)인조선조합에서는성긔(城崎)강전(岡田)두사람을일본까지로 보내어직공을 모집하기로하야 출발하얏든 권과두사람은 지난이일아츰 련락선으로 직공이십여명을모집하야왓슴으로 파업단에서는 공긔가일층긴장하여 어대까지든 자긔네의뜻대로 되지아니하는때에는 항쟁을계속할결심임으로 금후의 태도가매우주목된다고한다(부산)

天道女性同盟創立紀念

지난륙월이일은 천도교 녀성동맹창립삼주년긔념일인고로천도교녀성동맹에서는 동일 하오일시에경운동교당에서 한봉소(韓鳳韶)씨사회로 연혁보고가잇슨후김경함(金庚咸)리병헌(李炳憲)씨의 축사가잇고 김숙(金淑)씨의감상담으로 성대히 식을진행하엿다는데 현재녀성 동맹원

間島頭道溝서 日警이押收 藏匿한軍資金

무장단에주려든돈

간도두도구관내룡호동(頭道溝管內龍湖洞)에는 얼마전에 무장단삼명(武裝團三名)이출현하야주민을 협박하야 헌금백사십원을가저가고잔금은지난달십팔일에모처(某處)로가저오라고하엿슴으로주민은후환이잇슬가보아 이사실을 관청에 발표하지안코간신히 팔십오원을수집하야 지난달십구일에 그들이 지정한장소로가지고갓스나 그들은 거긔에 오지안엇슴으로 그곳촌장김모(村長金某)에게맛기고왓는데 김씨는 그동리에서도백여원을 무장단들이 청구한것이잇다하야 합계금이백이십원을 자긔집공옹(空甕)에 장치하엿는바두도구령사분관경찰서에서권긔김씨를 모사건의 혐의자로취조한뒤히 이사실을 알고지난달이십칠일에동서원이현장에출동하야 감추어둔돈금액이백이십원을압수하엿다고한다(간도)

굶어죽어도 初志를貫徹

피해자는고소를준비해 廣川日人暴行事件

지난이십칠일오후세시경에충남홍성군광천(忠南洪城郡廣川)하천공사장(河川工事場)에서일본인립화정차랑(立花正次郞)이란자가 조선인부송문옥(宋文玉)을대수롭지아니한일에 무수히구타하야 현장에서 졸도케하엿슴으로 동공사장(同工事場)의 인부들이 분개하야 삼백오십여명이 결속하여가지고총파업(總罷業)을단행하엿다함은 이미 루차보도한바어니와 하로버리하로먹는로동자들이 그동안 아무버리가업섯슴으로 긔지사경이라하나 그네들의말을들으면 이사건이완전한 해결이 잇기전에는굶어죽는한이 잇다할지라도 끗까지싸워보겟다하며 피해자 송은 가해자측으로 부터치료를해준다하나 다시무사가는방(房)한석에누어잇고 치료답게도 아니해줄뿐외라 일주일이지나도록 한푼의돈을 주지아니함으로 더욱이 분개하여 홍성읍(洪城邑)에잇는 변호사 정탁흠(鄭鐸欽)씨를대리인으로 하여가지고 소송을하며 한편으로 칠주일진단서를어더서 상해죄로 고소중이라한다

警吏의忘動 被害者를威脅

말을들으면네게해라고

별항폭행사건으로려야된수천군중(數千群衆)이당시주재소를장시간이나 포위습격하여 공긔가 흉악화함으로 당시로동조합(勞働組合)에서 정익범(鄭翊範)리홍태(李洪泰)량씨를 파견하여 가해자측인 금원구평(金原久平)씨를 회견하고사건조정(事件調停)한데잇서서 당시주재소에서는 권긔량씨를 호출하야 조정한것이아니라선동 한것으로본다하며 만일에앞흐로도 무슨일이잇스면 반다시먼저 주재소에 내통을하지아니하면 상당히조처를 하겟다고 넉짓이엄책하여서 송환하엿다는데 이를 안일반은 조정하엿스노 본 는 경찰에대한 비난이크다고한다

調停?煽動? 不辨菽麥의警察

조정원을호출하야심문

피해자 송문옥이가 가해자인립화를고소한 사실도 당시주재소원(金)모가 지난이일에권긔피해자 송문옥을 차저가서너의마음으로 가해자를 고소한것이아니라 신문긔자(新聞記者)와로동조합원(勞働組合員)이충동해서 고소를케한 것이라고하며 만일에잇서서 가해자와화해를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막대한해가 도라갈터이니 그리알나고위협(威脅)하는언사를 발하엿슴으로 이를안일반은 그경관의망언(妄言)에 대하야 비난이자자하며 당시에잇는 홍성긔자단(洪城記者團)과 로동조합(勞働組合)에서는 금후의행동을더욱심찰하여서 사회적으로 대항책을이르키리라고한다(홍성)

『가마니』판 分錢을모아 군수에게긔념품

곤산리(山梨)총독의수뢰(受賂)사건을 비롯하야 각지방으로부터 독직(瀆職)사건이뒤를니어속발하는이때에 전임되는 군수의은덕을 잇지못하야 일군인민이만구동의로 열정을 기우려긔념품을 진정하엿다는 사실이잇다 안성(安城)군수최익하(崔益夏)씨는본래경긔도[illegible]군수로 [illegible]맛다가지난 사월에 권긔안성으로 전근되엿는데 씨는 본시근검정직하고 겸손하야 애민처정(愛民處政)을하여오든바 그곳백성들은 남녀로유를 불구하고최군수의은혜를 다소라도 갑기위하야 자작자급(自作自給)하든빈민계급에일으키까지 『가마니』짜서 그돈으로 군수의긔념품에보태엇는바 그금품이 실로이

大田各飲食店에 前借金制를嚴禁

작부를고용하는데대하야 警察이監視키로되어

각일각으로 파멸하여가는 생활곤궁으로 인하야몸을팔어 사랑하는부모형제를 떠나려관과 음식점(旅館及飲食店)에고용사리하는 청춘의녀자들이 대전시내(大田市內)에도그수를헤아리지못할만큼만흔네 그들은 항상몸을해방하려고 부단히노력하나 일개월에 삼오원씩밧는월급으로는 도저히 전차금(前借金)을지불치못하야 해방되게 자연히 지게되야 풍긔가극도로 문란하여지는 동시에 밀매음(密賣淫)까지도 감행하게되는바요사이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에서는 문란한풍긔를 정리하고저 고주와 영업자(雇主及營業者)는 물론이와가튼조약(條約)을체결하엿다한다(대전)

一、將來前借金을貸與하야婦女를雇傭하려는者에對하야서는絶對로雇傭을容認치안음

二、旣히雇傭中인者에對하야前借가有한者는解雇를不得已한事情이잇는者는雇入條約準則第一條에依하야契約할事

三、前借가無、旣雇入又는雇入할時에는契約準則第二條에依하야契約하야何時든지該契約書를添付하야屆出할事

正義府員 宋氏出獄

오년만에

지금으로부터오년전시국(時局)에대한 불평을가슴에품고 멀리해외(海外)로도라다니다가 군자금(軍資金)을모집하려고조선내지에드러와 정의부(正義府)원으로활동하든 평안북도 박천군박천면미가동팔이〇번지(平北博川郡博川面美加洞八二〇番地)송긔송(宋基松)씨는검거되어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과총포화약취체령위반(銃砲火藥取締令違反)의죄명으로칠년의 언도를바든후 부산형무소(釜山刑務所)에복역중이든바 감형되어 사년반만인 지난륙월일일 아츰에만긔출옥하야 부내 영정(榮町)려관에서 삼일머문후 권긔고향인 박천에 도라가 당분간 휴양하리라고 한다(부산)

電燈이꺼저 暗黑의宣川

직공의태업?

지난이삼일밤선천시에서는초저녁부터천지가캄캄하게되여 전등이꺼저 이만시민이 고통을늣기엿다는바 전긔회사의 발전긔고장이라고도 하고 혹은단오명절인때문에 전공의태업인듯도하다더라(선천)

痴情으로乃妻를 白晝에刺殺未遂

돈업는남편실타고하여 黃州郡下에서

지난삼일오전 열한시 삼십분경에황주군황주면(黃州郡黃州面)에 거주하는차치호(車致鎬)(三四)는 자긔처인 김록녀(金祿女)(二六)를 칼로난자하야 혼도식힌것을 마츰 지나가든 행인이 발견하고 현장에서 본인을즉시체포하야 황주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는데 지금으로부터 십일년전에 차치호는 김록녀를 남편이 잇슴에도불고하고서 손을마조잡고 자긔의본적지인 강원도철원(鐵原)으로가서 재미잇는생활을 보내다가 유여하든 재산도수년간에 탕진하고 부득이로동 임금으로그날그날의 생활을계속하다가 지난삼월에 황주로와서 로동을하엿스나 로동도마음대로되지 아니하며 호구지책도되지못함으로 안해의반대도 불구하고로동 임금이 풍부하다는겸이포(兼二浦)로가자고하며 목적지인 겸이포로 바라고 떠나려할지음에 본시부터 행실이조치못하든 김록녀는 남편이 빈궁한것을 마다하다가 결국에는 너가티돈업는 자와는 살수업스니 너혼자가라는말을하고 단오를 리용하야다른곳으로도망하려하얏슴으로 차치호는 분을못익이어 집에드러가 식칼을집어내여 즉시추격하야 우시장에서 맛나쥐엇든식도로 가슴과머리를 난자하여중상을 식혓다는데 생명에는관계가업슬듯하나 두사이에자라나든 어린것들의참혹한우름소리는참아드를수업다고한다(황주)

金剛山探勝延期

외왕십리 하주조합(光熙門外往十里荷主組合)주최본보 동부지국후원인 금강산탐승(金剛山探勝)은예정인 오월삼십일일에출발코저 하엿스나 일긔의불순한 관계로부터 륙월칠일로(六月七日) 연기하엿는바이날은여하한 사정이잇슬지라도 출발하리라하며 일반의 만흔참가를바란다한다

榮州靑盟員事件 公判은六月末頃

광주학생을동긔로격문 大邱法院서豫審終結

작년십일월에전남광주(全南光州)에서학생만세사건(學生萬歲事件)이이러난후경북영주(慶北榮州)에서도 청년동맹원(靑年同盟員)다수가격문산포(檄文撒布) 시위만세(示威萬歲)등을 계획하다가 동지 [illegible]에서 한동안세상의이목을경동케하다가안긔석(安基錫)(二四)외 십칠명이 검거되어 그래 대구검사국의손을 거쳐 대구지방법원 예심에 회부되어 유택(有澤)예심판사가 개월동안 심리하야 금년이월에 검거되던 일이 근 반년이나 되어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을보게되엇다는데 근래에 희유의 조사서(調書)들이두엇다하며 공판은육월에개정되리라한다(금천)

豫審終結決定

榮州郡豐基面金鶴洞 安基錫(二四) 金俊相(二二) 權鍋東(二二) 鄭敎東(二九) 榮州里三五番地 宋海平(二三) 尹山里金秀登(二三) 文亭里朴贊度(二九) 下岩里 姜遂昌(二三) 金鶴實(二一) 上岩里 金昌鍋(二五) 平面金華鎭(二七) 榮州面朴麟緖(二三) 豐基面禹珍八(二二)

右被告安基錫、金俊相、權鍋東、尹次慶에對한隆熙三年法律第三號出版法違反住居侵入及保安法違反同出版法違反住居侵入被告鄭敎東安基錫金相俊鄭錫煥鄭敎東의被告十五名에對한暴力行爲處罰에關한法律違反各被告事件의豫審을遂하야終結決定함이如左함

主文

本件을大邱地方法院公判에附함

理由(抄錄)

被告安基錫外十八名은慶北榮州靑年同盟의會員으로서昨年十一月全南光州學生事件에聯하야一般民心이動搖되어잇슴을好機會로하고民族思想을根據로한共產主義思想을宣傳하려고本年一月同志를會合한後多數의檄文을印刷作成하야同月二十八日에此를榮州郡一帶에撒布하얏고同時에二月三日에榮州面民多數를煽動하야市內에서一大示威運動을開始하고鄭敎東外十五名의被告는警官의制止도不拘하고遂히暴行化하기에至한것이다

金泉道議事件 公判開廷

방청권발행

경북김천(慶北金泉)에서지난번도평의원(道評議員)선거당시에이러난홍재숙(洪在淑)대조봉래(趙鳳來)량씨간의명예훼손급선거위반 및선거방해고소 사건은그동안 예심종결이 되엇스나판사의 출장관계로 이래보류중이든바오는륙일 오후한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大邱地方法院金泉支廳)에서공판을개정한다는데 도평의원선거 사건으로공판까지 이르게됨은 조선에서처음보는것으로 당일에는 방청인(傍聽人)이만흘것을생각하고일방에서는 방청권발행 설도잇다는데 금번이사건에 관련되는모모세사람은구약식(求略式)으로처하게 될것이라하며 피고인(被告人)인조씨는변호사일인을준비하여놋코 몰여의하면 공소까지할의사를 가지고 잇는모양인데일반은 공판의 결과가여하히락착될것을매우 흥미잇게대하고잇다한다(김천)

釜山에小火

지난이일밤한시십오분경 부산부 평정사정목삼십오번지(釜山富平町四丁目三五番地)과자상소도수마(菓子商小嶋數馬)의과자공장에서 발화된것을소방대(消防隊)의진력으로 진화하얏다는데 발화의원인과손해는방금 조사중이라고한다

運動競技

專門校庭球戰 醫專朴·牟田組 勝

全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庭球戰第二日은 一日에擧行할豫定이엿든바降雨로延하야 三日午後一時부터 再開하야 各校가奮鬪한結果 醫專의 朴·牟田組가優勝의光榮을獲得하엿다

專門學校野球大會

全朝鮮專門學校體育聯盟野球戰은七日부터 京城運動場에서擧行할터인바그『스케一듈』은이래와가티決定하엿다

▲七日午後四時高商對醫專

▲八日午後零時半法專對高工

▲同午後四時高醫對第一日勝者

▲九日午後四時에決勝戰

中等校排籠球聯盟

京城府內中等學校排籠球聯盟主催로 本年度選手權大會를七日午後四時부터 太平通日本人基督教靑年會『코一트』에서 善隣對工業籠球戰으로부터 開幕할터인바 參加校가十校에達하야 盛況을豫期하는바이라한다

春期實業聯盟野球 鐵道『遞信!

京城實業野球聯盟遞信對鐵道第三回戰은 三日午後四時二十分부터龍山鐵道그라운드에서(球)早速·(壘)高塚·吉富審判下에遞信先攻으로開戰한結果鐵道軍이先制하야四回에二點 五回에二點을得하엿슴에反하야遞信은二回에一點을得할뿐으로서 結局四A對一로 鐵道가雪辱하고六時三十分에閉戰하엿다

빽터리 (遞)金永爽—成龍雅 (鐵)吉田—一生乃

鈴木院은大韓醫院藥劑部를設置하는同時에特히漢藥材를原産地로直輸入하와左記와如히廉價로酬應하오니特別藥科와調劑에漢藥을一次試用하시압소서

六味湯	一劑(特上)	二圓五十錢
八味湯	同	二圓八十錢
十全大補湯	同	三圓三十錢
鹿茸大補湯	同	十圓
八珍湯	同	三圓三十錢
四六湯	同	三圓
水土湯	同	三圓
肥兒湯	同	一圓五十錢
附子理中湯	同	三圓
補中益氣湯	同	三圓
調經種玉湯	同	三圓八十錢
倍四物湯	同	一圓十錢
雙和湯	同	一圓十錢
固眞飲子	同	三圓三十錢
歸脾湯	同	三圓三十錢
六味丸	同	三圓五十錢
八味丸	同	四圓
鹿茸大補丸	同	十二圓
十全大補丸	同	四圓五十錢
四六丸	同	四圓
肥兒丸	同	二圓五十錢
水土丸	同	四圓
七製香附丸	同	三圓

別告 服藥家에如何한處方이든지付送하시면廉價調劑함 但十圓以上注文則送料本院自擔

內外科及花柳病科專門 京城府鐘路五丁目三三 百中院漢藥部 振替京城八七七四番

恩給低利立替 京城櫻井町一丁目一番地 淸商會

小粒 大粒 仁丹 ポケット入

銀粒仁丹은主劑外에貴藥朝鮮人蔘及비타민B를配合함

두통현훈에卓効잇는 銀粒の仁丹

●仁丹은强壯、强腰、精神爽快、口臭芳香、保健救急을爲하야

氣分이납블때 口中惡臭時 暑氣를使用할時

執務工夫時 疲勞倦怠時 船車旅行時

運動散步時 集合觀劇時 宴會喫煙時

食前食後 訪問接客時 惡疫流行時

每日常히携帶身邊하시고一回에二、三粒式活用하시라

仁丹のハミガキ・仁丹の体温計

支店募集

荷主本位、非合同元祖

① 朝鮮合同運送株式會社

京城驛前(南大門通五丁目五九) 電話長本局八三一番 私書函南大門局三八號

支店

咸興、大邱、安東縣、金泉外五十七個所

取引店官私鐵各驛에有함

支店長希望者는至急來談을要함

內務及外交社員男女若干名募集

(市內居住者로하고保證人을要함午前中本人來談하시옵)

05011

簡易揚水機 國產揚水機 新案出願

五尺迄 八尺迄 十尺迄 各種

効率絶大 堅牢優秀 價格極安 在庫豐富

의出現

(型錄進呈) 京城府若草町 도바다石油發動機 도바다揚水喞筒 發賣元 國產商會 電長本三六六九 振替京城一八七四六

教授十餘年 絶對責任 免狀을得하기까지無料로練習함就職紹介 自動車運轉士養成

公認 月收八十圓、百圓은容易 目下入學의好期 無試驗入學許可 宿舍有함 規則二錢切手封申込 京城府岡崎町停留所前 設立 官認 朝鮮自動車研究所

水原城內南昌里 리창용치과의원 李昌鎔齒科醫院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話光化門一八七番

殖產積金 貯蓄預金 殖產貸付 及諸貸付

朝鮮貯蓄銀行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留美朝鮮人의產業研究機關 美業 創刊號 定價五十錢

學理와實益을兼全한斯界의第一聲 太平洋을隔하야부르지즈는留美同胞의氣慨

內容目次槪要

朝鮮經濟發展에對한管見……北美致府……徐載弼博士

農民相助銀行建設에對한一考案……金度演

朝鮮經濟發達을엇더케할가……씨두너博士

丁抹共同組合運動의影響及信用金融組合組織에對한內容……徐珉濠

朝鮮에工業發達과水力電氣利用……羅基湖

人類經濟生活의五分野와意思作用……李勳求博士

朝鮮經濟의復興策은무엇……金燦

우리產業界의現狀과그의避치못할影響……平壤吳禎洙

前途有望한羅誌企業에對하야……金善

共濟產業會社設立을提唱함……安定洙

◆留美우리實業家訪問記

十餘種과附錄編輯餘談滿載

萬國에在留하는우리同胞의唯一한產業方面의研究機關으로서멀니祖國을想望하야農工商各方面에亘한우리更生策의重要論文과異域에서數十星霜을두고開拓한우리同胞苦心慘膽한實業方面의經營談이며또우리朝鮮의維新勞頭當時에뛰어나든徐載弼博士의警世大文學을讀獻한이雜誌을닐히江湖에薦하니다

發行所 北米 產業協會

京城桂洞一三三番地

總販賣所 京城鍾路二丁目 朝鮮人產業協會 東洋書院 振替京城四九二番

四年中農產物 輸移出入價格
輸移出二億四千萬圓 輸移入一億四千萬圓

朝鮮에農產物生產額은約十一億圓인데內輸移出額에對하야總督府調査에依하면昭和四年中의輸出額은一千三百二十萬五百三十二圓移出額은二億三千六百四十萬八千六百八十九圓計二億四千九百六十萬九千二百二十圓이다前年에比하면輸出은七十三萬三千七百四圓을增하고移出은三千二十四萬三千四百三十一圓을減하얏스며輸移出은二千九百五十萬九千七百二十八圓의減少이다此를輸移額의全體에比하면農產物의輸出은三割六分九移出은七割六分三의比例이다또農產物輸移入額에對하야輸入은六千五百十一萬二千六百八十圓移入은七千八百二十二萬七千四百七十一圓計一億四千三百三十四萬五十一圓이니前年에比하면輸入은九百六十八萬五千三十三圓을減하고移入은一千百五十六萬六千九百十圓을增加하얏다此輸移入에서는百八十八萬一千九百十圓을增加하얏다此를輸移入全體에比하면農產物의輸入은二割五分七、移入은二割一分一의比例이니그詳細는左와如하더라

◇農產物輸移出額(單位千圓)

種	輸出	移出	計
農產物	一、七四三	一五二、〇四三	一五三、七八五
林產物加工品及副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林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加工品及副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業關係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比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移出全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體에對한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產物輸移入額			
農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加工品及副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畜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畜產物加工品及副產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農業關係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年比增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全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全體에對한比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年來의新記錄 鮮銀券發行激減
前年同期보다約一千萬圓縮小 財界不況의活事實

金解禁以來朝鮮經濟界의不況은極히深刻하야一般金融界의金融이몹시梗塞함은아주顯著한事實이다各銀行은資金供給難에陷하야貸出人의爭奪戰이이러나는形便이라朝鮮의通貨는大規模的으로縮小하야昨今의數量은이미七千萬圓臺로下落하얏다昭和二年十月七日의七千五百萬圓臺가出現하얏든以後에처음으로七千萬圓台가出現한것이니即七千九百十五萬一千六百八十九圓七十錢이다此를前年同期의八千九百二十萬一千九百六十七圓에比하면約一千萬圓이나減縮한것이라그러한發行高의著大한縮小는朝鮮經濟界의얼마나不況이深刻한것임을反映하는것이라더라

金組金融 需要旺盛
預金은減少

殖銀金組中央金庫課五月末現在金融組合聯合會預金貸出高는左表와如한데從來緩漫하든金組金融狀況은需要期에入하야漸次活況을呈한다더라(單位千圓)

種別	五月末	對前月末增減
△預金		
定期	五、五三〇	△、五八〇
通知	三一〇	△、六一五
計	五、八四〇	△一、一九五
△貸出		
預金見合	五、一三三	五七〇

即預金으로는五月末現在百十九萬五千圓을減少하얏고貸出로는百五十七萬圓의增加이니資金의移動이頻繁하야졋슴을示함이라더라

白米又値上
一瓩五厘引上

京城府公設市場에서는玄米商度의品不足으로正米相場의騰貴에伴하야四日부터白米價格을一瓩에對하야五厘引上하야一等米二十一錢五厘、特等米二十二錢五厘로改訂하얏다더라

五月中 豆粕輸入好況

五月中安東經由鐵道便에依한豆粕의朝鮮內輸入數量은三百六十六車一萬九百八十八噸이다前年과의增減이업는成績이다最盛期는幾分通過한感이잇스나琉安等에抑壓되면分相當한輸入이다今後도當分間은此好調를持續할듯하다더라

朝鮮의銀行經營 何等特色이업다
根本策을確立함이 不況打開의一方策

朝鮮內各銀行의經營方針은大同小異하야銀行의目的에何等特色이업다自然放資物件其他거의同一한軌上에잇슴으로資金運用上各銀行은다利害關係가同一하고各本支店間의競爭을釀成한다最近財界不況의深刻化함에따아此傾向이顯著하고不動產金融이大宗인朝鮮에서는一面으로不得已한點도잇서各銀行經營者는特히此點에考慮할바이다銀行의特色을發揮하기에努力할것이라는意見이刻下不況打開策으로提唱되다去廿九日에釜山에서擧行한全朝鮮銀行大會聚親會席上에서加藤鮮銀總裁도銀行의根本策에對하야力說한바가잇섯다더라

新生糸年度 殘越廿二萬梱
空前의大滯荷

(神戶電) 橫濱、神戶兩市場의六月一日現在新絲年度殘越古絲는二十二萬九千六百八梱半이니前年에比하면十七萬八千九百十五梱의大激增으로空前의大滯荷이라더라

組銀預金減少
貸出은增加

五月末現在京城組銀預金은合計八千四百十二萬圓이다前年同期

綿、生絲類 輸移出이激增
輸移入은만히減少

總督府의積極的蠶業獎勵에基하야逐年激增하는傾向에잇는繰綿、生絲、柞蠶生絲、絹織物等의輸移出數量은昭和四年度의輸移出數量은二千六百十四萬九千六百四十二斤價額四千三百六十二萬五千二百六十二圓이니前年에比하면斤數三百六十六萬三千八百五十六斤價額二千三百三十三萬八千三百三十四圓이各激增하얏다此에反하야繰綿及打綿、綿織物、柞蠶生絲、生金巾、生細布及生『시ー팅』晒金巾晒細布及晒『시ー팅』白木綿『진스』及太綾布等의數量은一億二千六百四十一萬五千九百四十五斤價額四千七百二萬二千三百二圓이니前年에比하면二千六百七十八萬五千九百九斤價額八百三十九萬五千九百四十三圓이激減되얏다此는朝鮮의生產能率이增加한外닭이라더라

生糸暴落
當限九百圓臺割

春繭의掛目協定難으로休會後의生絲市勢는製絲家、養蠶家、銀行業者의注目하는바인데本日前場寄附는當限八百三十八圓先限八百四十二圓이라當限六十六圓先限四十八圓의暴落을演하야當限은遂히九百圓을割하얏다即此當先의銷寄는蠶繭家의主張하는三十八掛市勢를根底로부터轉覆하야採算하면製絲家의主張하는三十一二掛도다시割하야二十七掛四分이라는市勢가되고야掛目協定後에다시一問題를提供하게되얏다더라

五十人以上의 工場賃金調查
朝鮮人은日人의半額
‖總督府文書課調查‖

昭和四年十月부터同十二月外지에本期의五十人以上從業者를有한工場을調查하건대業種三十六工場數百八十三으로賃銀及從業時間의平均及從業者數를朝鮮人及日本人中國人의男、女、成幼年工別로見하면

		賃銀	從業時間	從業者數
◇朝鮮人				
男	成年	一、〇六	一〇、四	三、五〇一
	幼年	四四	一〇、七	一、〇三三
女	成年	五八	九、九	[illegible]
	幼年	三四	一〇、四	[illegible]
◇日本人				
男	成年	二、三一	一〇、〇	[illegible]
	幼年	五五	九、二	八
女	成年	[illegible]	一〇、九	[illegible]
◇中國人				
男	成年	一、〇一	九、九	一、九二五
	幼年	三二	一〇、〇	二二
女	成年	[illegible]	八、〇	一〇

蓬萊新米 初移入
粟보다有利

朝鮮米及日本米의一大脅威인蓬萊一期米는本月十日頃蓬萊丸으로約百袋仁川에初移入될터인데市勢는目下仁川沖六月渡九圓二十錢七月中渡八圓八十錢內外이다滿洲粟에比하야諸點으로有利함으로實行이良好할터이라더라

五月中米粟 輸移出入高

總督府發表五月中의米及粟輸移出入高는左와如하더라(單位石)

	輸移出	累計	輸移入	累計
米	三九八、七〇五	四、二九一、六〇〇	七〇、三〇一	三五三、八六五
粟			三〇五、九三〇	一、三三八、五三七

日本麥作 收穫豫想
前年보다는 三分五厘減

(東京電) 農林省에서發表한五月二十日現在全國三府三十五縣(北海道、青森、岩手、宮城、秋田、[illegible]、長野縣除外)總作反別은百二十一萬九千四百二十六町七反步、收穫豫想高는大麥五百八十六萬五千八百六十石、裸麥六百三十六萬四千九百四十石、小麥五百七十五萬九千百七十石、計一千七百九十八萬九千石이다此를前年實收에比하면九百七十石이나增收로作付反別로는二萬六千百十三町三反步減二分一厘、收穫高로는六十六萬一千八百八十三石即三分五厘各減少하얏다平年作의收穫高보다六分三厘의減少이라더라

銀落潮滔滔로 安取銀市益殷盛
軟派의黃金時代現出

(安東發) 落潮滔滔한銀低에依하야安取銀市場은引續하야軟派인朝鮮人側의獨舞臺인듯하다端午節句前보다京城沿線은勿論市場에서는殺到하는來客은市場外에넘처서賣買가더욱殷盛하다는現象은前日賣出하야新價에서新價에로追擊하는바四日前場은遂히七百十二圓이라는新低價를示現하고또目際인六百五十圓에向하야進出하는形勢이다軟派의黃金時代를現出하얏는바過般來朝鮮人側이獲得한額은約百二十萬圓의多額이라한다安取市場은通日殷盛을極하고下半期에道入하야第一日의出來高一千七十九萬錦、第二日인三日은一千三百四十三萬二千錦이라去一月九日의最高記錄인一千四百四萬二千錦에버금가는活況이라더라

이繼續하기로되리라더라

各地新繭市況

市名	類	高價	買開	掛目	出廻
駿州沼津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靜岡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仁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濱松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俣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豐橋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州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宮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尾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坂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伊勢田丸	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前多比良	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信州金山 鮮銀이直營

加藤鮮銀總裁는銀行大會의歸途에信州金山을視察하얏는데同金山은目下佐賀炭抗名義로잇는바亥角氏等의經營交涉問題도全然斷絕되얏다鮮銀에서는直營할方針下에計劃을進行하야佐賀炭抗

靑島取引所 立會中止

(靑島三日發) 靑島取引所의前場은中國側有力取引人의追徵金을支拂치아니하야立會를中止하게되얏는데本日의市勢는五十四圓五十錢이오아직도下落할氣配이라더라

京城商議役員會

京城商議에서는五日午後二時부터役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에對하야協議할터이라더라

一、東京商工會議所에서紹介한勞働法案에對한解答의件

繭値基 一、兩日中決定
目下決裁提出中

本年春繭의出廻는始作되야近間에各道에서共同販賣를開始하기로하얏스나繭의値基가아직決定되지안엇슴으로全北道에서는假拂로서繭去來가開始된狀態이다總督府에서는繭値基의決定에對하야目下에時急히決裁를提出中인데一、兩日中에決定發表할터이라더라

株式 波瀾重疊
市勢와商況(四日)

	京城 今日後引	前日後引比較	大阪 今日後引	前日後引比較
京取	—	—	—	—
大新	四一、三三	三低	[illegible]	[illegible]
鐘新	—	—	[illegible]	[illegible]
日產	—	—	[illegible]	[illegible]
東新	八七、七	一〇低	[illegible]	[illegible]

前場激落

阪地가昨後急落의氣先今朝도一段不勢로諸株新低

諸株一齊히 新低價로崩壞

紡績株를中心으로日來다시不勢를呈하는株式은今朝에至하야는一層不勢로阪地大新과如한은四十一圓臺鐘新은五十七圓臺의新低價에際落되야人氣는恐怖狀態로當地는東新買方의多數가投出하엿스나主力側은아직顯著한投出이無하고引際는賣方의利喰急

寄附當入하야當地는京取十七圓五十錢에寄를始하야東新은八十七圓八十錢에昨日보다九十錢低寄後低價五十錢이잇다가取引小高大引에入하야八圓四十錢에大引되고京取는引不成其他는無實買인데前場中實買는京取五十枚로賣方立山二十白樂三十에對하야京取一軒買오東新七百十枚로三十枚以上手口는賣方大林百洪殷二百五十總家六十京殷三十松山七十立山四十白樂百二十買方大林六十白井六十洪殷百總家四十松山百十田邊二百三十立山七十이엇다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東新 [illegible]

後場續落

阪地가前引小戾이든바後場은다시不勢로寄附된中大新四十一圓五十錢의新低價를入하야當地는大新四十一圓七十錢東新八十八圓三十錢에各寄附된後阪地高低區區하엿스나結局不味大引을入하야大新은三十錢東新은七圓七十錢에各大引되고其他株는不成이더라

後場諸株步調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하야[illegible]東新은大新에比하면頗히現狀維持로結局은이곳에買物이모혀들기쉬운즉畢竟은東新도過般의低價를下廻할것으로觀測하는便이多하더라

株界一六一感

◇再昨後場에는奇蹟的의反發을演한東新은昨後부터다시崩壞

◇今朝大新은四十一圓臺의新低價를出하얏다大株市場의買方野村이投出한모양이라고

◇鐘紡은底拔的으로暴落하고生絲綿絲도다시暴落하야四圍가不良하니株式의一般惡化는難免

◇買方이未練을가지고投出치안는동안은轉換을期키難하다고恒常말하든바이다

◇自前의利害에拘泥되여冷靜을決하고大勢의非항은察치못할은敗亡의本

◇一般商品界는去益不良하고緊縮政策은徹底히實行되는모양이니아직은株式受難時代가繼續될듯?

當分 株式受難繼續?

銀價暴落에因하야對中貿易은殆히絕望狀態로出廻를期待하야下半期出超도期待가漸弱하며國內의消費도漸益減退되는一方이오期米安生絲綿絲고무等諸商品이皆暴落되고倫敦銀塊도十七片을維持키難할形勢로財界는回復의曙光이無하며銀行券의發行高는激減하야通貨는收縮되는一方이니當分은到底히株式의回復을볼수업슬것이다如此히모든것이買方의後援이될만한材料가無하고四面에不良材料뿐인즉아직은株式受難時代가繼續될것으로買方은大勢에抗치말고一次奇麗히投出하리라고某經驗者는말하더라

東新不足激增

東新株의不足은其間顯著히緩和되엇더니買方의受株旺盛으로今朝에는株不足八百四十枚를示하야前日에比하면七百四十枚의激增으로依然逆日步二十七錢이오京取株의代引은不變이더라

期米 依然軟態

	今日止値	前日止値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同價
兵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場續落

昨後場阪地二十六圓五十八錢止와共히二十五圓六十三錢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六圓五十七錢인昨止同様의報를據하고

二十五圓五十九錢인四

十六錢外지瓦落하얏는後阪地四節六圓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四節六圓十三錢으로返戾止場함을伴하야

後場小戾

(前場은賣地二十六)圓五十三錢인前止同値의前場을比하고二十五圓四十錢인一丁高로寄附하얏든後阪地六十三錢으로返戾하얏다가結局五十五錢外지跳返하엿다가結局阪止五十九錢의小落을入하야四十八錢에場을止하엿다

天崩地折 底不知의形勢

客月부터繼續低落을加하든各地相場은五月末에至하야實逆의反動으로掉尾一振의高價를示하자當地는六十餘丁의急騰을告하더니本月에入하야各地의又復瓦落을따나强硬하든當地도畢竟單獨의高價를維持하지못하고結局天崩地折의形勢로實로底不知의步調를帶한다果然目下四圍의事情을綜合하여보면朝鮮米만은二年繼續의凶作인만치彈力性을含有하엿다할수잇스나日本各地의米界로보면朝鮮과如히供給難을憂慮할程度가아니며乘하야豐作이얼마큼買氣를助長할뿐아니라무엇보다도財界의不況이去去益甚할을보아아즉도低落할餘地가限漠하다고某軟派는主張한다果何如?

米界餘話

◇今朝에入하야各地共히又復一落을告하엿다可謂底不知의形勢로군

◇硬派는日阪仁의無鞘를主張하나更히더硬勢를維持하지못하고百餘丁만의縮鞘에止할뿐인결

◇中限은正米의實情을度外視하자못하고先限은天候의如何를따라決하게되니中先의逆下鞘는할아리當然

◇그런데銀價는大海를決함과如하고株價는天崩地折의勢를呈하니米價도自然그影響을밧지안흘수업는걸

◇누구나端境期의米價爆發을預期하나그러나먼저低落相場이演出된然後의事일뜻

◇日本은植付를旣히終了하고朝鮮은이제야植付가方股한中인데天惠는例年에比할수업시萬民同樂

中先限의 逆鞘益擴大

新甫와會初에同鞘이든中先은今朝에入하야三十餘丁의續下落을呈하야往往期米의最大暴見하게되엿다今先限이얼마나低落될는지는마치알수업스나中限은期近에接近한만치正米의市勢가依然强調함을보아容易히低落을不許하고先限은純天災期에入하는限米인만치米의豐作을預期하고實物이集中함으로自然中先의逆下鞘를示하게되엿다然而今後의天候가마치如何할지?今日의現象으로는安心買를할수잇스나아즉도漠然한天災期를無碍히經過할는지疑問이라고謂키도難할것아니라今後八九月頃에는凶作의本相場이展開되기가十居八九임으로無謀히賣叩한다고말할수업다고某硬派는또한主唱한다果然나?雨?

正米 各地區區

◇仁川小低‖今朝도產地로서의入荷는引續少量이엇스나一般은市中在庫豐富와移出의不採算으로見送하야必需筋는低價待에買進하고定期의弱保合도加味되어人氣低弛하야相場은前日보다十錢음低로丸キ石拔三等二十五圓十錢四等二十四圓七十錢唱이엇스며移出은一等白米二十八圓四十錢에五百石의取引을見하엿다

◇群山强含‖今朝는產地로서의廻着이五輛에잇스나其內賣物은一輛박게업고日本當用側의小口買가間間잇슴과精米側의手當買로人氣小强이나相場은定期의保合에前日보다五錢高인石拔三等二十五圓三十錢唱이엇다

◇大邱瓦落‖今朝는產地로서의入荷八百十四叺인少量인데도期延의無活氣에買手傍觀으로人氣不冴하야相場은二十錢音低하三等穀良二十四圓七十錢神力二十四圓二十錢唱으로市況이極히閑散하엿다

◇釜山不變‖本朝의出廻는千六百叺이오倉入物의賣도相當하엿스나日本으로서의買注와期延의不冴를受하고買氣衰縮하야依然高價에는傍觀狀態인데相場은伸悩하야三等二十四圓八十錢、四等二十四圓五十錢인不變唱으로賣行은千四百四十餘叺인데賣方은石川、後藤、買方은大池、那須等이엇다

株式 (四日)

京城短期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京取	一三五〇	—	—	—
鐘新	—	—	—	—
大新	—	—	四一七〇	四一三〇
東新	八七八〇	八八四〇	八八三〇	八七七〇
仁取	—	—	—	—
仁新	—	—	—	—
安取	—	—	—	—
日產	—	—	—	—
朝新	—	—	—	—

京取短期賣買高

前場 七七〇枚 合計 一五七〇枚

大阪短期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四二一〇	四二四〇	四一三五	四一六〇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八八〇〇	[illegible]	[illegible]	八八七〇

東京短期

株名	寄付	高價	低價
東新	八七九〇	[illegible]	[illegible]
新後	[illegible]	[illegible]	八七六〇

東京現株前場

株名	前寄	前引
東株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紡績	[illegible]	[illegible]
東電	[illegible]	[illegible]
日石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前場日產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後場日產 [illegible]
▲後場東新 [illegible]

京取主要株取組

京取 賣方 大林 白樂 ……
鐘新 賣方 ……
大新 賣方 大林 白井 ……
東新 賣方 ……

[illegible]

代引算定日步

株	代引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糸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花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前寄	前引	後寄	後引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滿洲各地商況(前場)

[illegible]

安東取引所株

[illegible]

滿洲引取所株

[illegible]

鐵平鐵時勢

[illegible]

期米 (四日)

仁川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 一 ~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一 ~ 七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賣買高・ 約入價格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 一 ~ 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 一 ~ 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引值段 [illegible])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 ~ 十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兵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各限後合

[illegible]

大阪市中在米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數	金額
[illegible]	一、六〇〇、五一〇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日本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고무原料市勢

[illegible]

延取 (四日)

群山

[illegible]

大邱

[illegible]

釜山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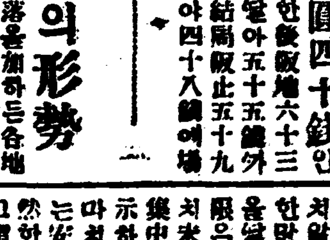
群山廻着米

[illegible]

京城綿糸布時勢

[illegible]

海潮音 【86】
金基鎭 作 安夕影 畫



패배자(二)

그리하야그들은 실진한사람과가튼 만흘이를 켜외하고서 고향으로 돌어갈차칭을연구하다가 결국은 아직써지도장을써어주지아니한 매도증서(賣渡證書)에 오개월만하고 돈을가저오는써에는 각각배분을하차저갈수잇다는 조문을 첨가하야가지고 도장을써어주고 그대신 네사람이 고향으로도라어갈려비를 조로인으로부터바더내기로하얏다

조로인은 그들의이와가튼교섭에 처음에는 상대도아니하얏다

『구스말인가 이사람들!오는날와서 그증갑나가는 발농선은도망을하야 버린뒤에빈얩데가매도증서만가주고 잇스라니 그게진중서가 돈이되는가?』

조로인은 역정을내엿섯다

그러나 준택이가

『그러기에 발동선에대하야서는 우리가공동책임을지고 차저다들이겟다하지안소!커들이아주도망갓다하더라도조선바다안에잇지 외국바다에갓겟소그럼넘려는마시고 얼른일을조토록합쇼 불상하게된사람은우리들배사람들이지령감은 괜찬소』

이와가티 간청을 하고 유순한말로로인의감정을 눅일써에그는

『금년에 고기만만히낫드면 이런일커런일잇겟소 금년에는 선주도망하고 재주도망하는판에이오!과연 압일이 캄캄하오……그러니까 내가고향에돌어가는려비까지는 내가당할수업스니낸데가서 밧을내가주고서를 어들가오……돌어들가서 발동선육차커놋소그러면 발동선을 여기까지가저오는비용은 어써겟소?내가당할밧게!』

하며 씁쓸히 웃어보엿섯다

그러나 세사람은 하루온종일 조로인을붓들고 졸라서 마츰내 한사람압헤 이십원식의려비를 매도증서의가격(價格)에다 보태어너키로하고서 조로인으로부터 어더내엿다 조로인은그들이 주재소에들어가잇슬동안에 남수의참변이이러낫슴을알고 그들도도 오두가두못하는곤경에서게된것을앎음으로 그러케하여주는수박게업다고생각하엿든모양이다

그러하야 마츰내 반즘실진한 만흘이를비롯하야 준택이 홍업이 광식이의네사람은 한만코.괴역에갓흔 차호한구에서몸가러자낸모든 사건을뒤로두고고향을향하야 써나게되엿다 그리고 안호는 그들을작별하기위하야주머니를털어가지고 술을나누는 좌석을맨들고롤녀에갓가운 차호루(遮湖樓)의방이집도록 쓰거운소주로목을축이엿다

한순배!두순배……열순배가넘도록 그들은 쉬어자아나하고마셧다 마시고서는 버슬을 쉬엇다

『괜찬타!한울아 늬 언잔더묵어라!』

『준택이 너도묵어라!광식이 너도 묵어라! 언호씨도 ●잔더잡시오』

『에-먹지오……』

『인커 우리가 서로맛나지못하겟소! 언호씨는 차호에서 살겟소? 언제까지든지 잇겟소?만일 명년엘시라도 차호에 지나는일이잇스면 맛나겟지만……』

『래두人일을 어써아오!내가여긔서살겟는지 또어데꼿으로바람에 불려갈는지……인커는데살고십지도안코!』

준택이와홍엽이와 언호는압만으로는넉넉히발표할수업는마음속을하소비하얏나 그리고그하소연도부족하야서 나중에는눈물을흘리며울엇다 그리고만흘이도 녀름에 처음으로 이곳에도착하든날 북칠집에서 두사람의친구와 함께 유쾌하게술을먹고 남수의 풍영한 자태에마음을빼앗기든일생각하자 [illegible] 가슴을짯는듯한괴로움에그들과는 류달은 눈물을 하욤ㅂ시흘리엇다

그러나 광식이만은 울지아니하얏다 그의머리에는 모든불행한일이 다만자긔들과가튼처시에잇는사람들에게만한하야잇는일이며 이적석에울음을참지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불행아커지의원인에머한연구심이업시 단지 현재당하고잇는자긔의사정이긔막힌것만올놋가고우는것이라는생각이가득햇슨이엇다

『무엇이 우리를 이러케긔막히게하는것일가?돈이다!돈써문이다!그리고 우리는 고리머금(高利貸金)하는사람과다름아업는재주나 일본사람의자본가써문에일만죽도록하는커지에잇는써닭이다……울고잇슬일아니다 어써케하든지해야만한다!』

그는 술긔운으로 불이나는듯한 더운숨을쉬면서 이가티혼자人말하얏나 그리고서그는고향에돌어가면 어써케하겟다는계획을 머리人속으로그리어보기시작하얏다

마츰내 날이밝고 밤사이에술이취해서 정신업시 쓸어자자든네사람은 술집에서나와서약간준비를하야가지고 차호당거장으로나아가서 증산(甑山)인도 정거장外지와서 조로부녀다 그리고 세사람의선주와광식이는 긔차가산모롱이를돌어갈써外지 그들을돌내노코서 언덕아래로떨커잇는 손바다만한항구의시가를주시하고잇다